

할렐루야! 주 안에서 귀한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부모들의 희생과 사랑 안에서 귀한 자녀들이 믿음으로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각 가정들 주님의 은혜로 종만게 하시고, 자녀들 위에 한없는 은총과 축복을 하려하시며 주 안에서 화목한 가정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녀들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라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4년 5월 11일 (토) 제 1968 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Email: nychpress@gmail.com

당신의 교회, 어떻게 미래를 대비할 것인가?

교회에는 큰 무기가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어느 일요일 아침, 당신은 교회 밖에 서 있다. 이른 봄의 햇살이 등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고, 당신은 지금 새신자와 특히 감동적이었던 찬양 시간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거친 타이어 소리와 딱딱거리는 전기 음에, 당신은 무슨 일이지 하며 고개를 돌린다. 새로 만든 현관에서 멀지 않은 관목 숲에서 회색 스포츠카 한 대가 요란하게 연기와 김을 피우며 멈춰 섰다. 금새 스포츠카의 문이 위로 열리더니 어떤 한 사람이 내린다. 그러고는 당신에게 달려오더니 소리친다.



만날 목회의 현실을 보게 될 겁니다. 깜짝 놀랄 준비를 하세요.” 당신이 채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당신은 벌써 시속 88마일 속도로 요란한 소리를 내는 스포츠카를 타고 주차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얼핏 여객 너머로 주차장으로 몰려드는 사람들이 보인다. 스포츠카 때문에 엉망이 된 관목을 보고 괴로워하며 하늘을 향해 손을 드는 관사 한 명을 보는 순간 평 하고 당신은 사라진다. 지금으로부터 30년 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당신은 미래로 떠났다.

무서운 현실, 불확실한 미래

물론, 이견 약간의 상상력을 가미해서 재미있게 만든 것이다. 하지만 누구라도 추측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지금 이데올로기 노선에 따라 분열되는 문화의 폭풍

구름이 모이는 현실을 목격하고 있다. 정치적 반대자를 단순히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악마로 간주하는 세상에서 지역 사회 전체에 걸쳐서 증가하는 양극화를 목도하고 있다. 물론 국회의사당에 매달리는 노인들의 도움은 기대할 수도 없다.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속도로 교회 출석률이 감소하고 있다. 우리는 강경함에서 조금도 뒤지지 않는 탈기독교 세계주의에 맞서는 반동적 민족주의의 부상에 대해서 우려한다. 그게 다가 아니다. 성경적 인간학에 적대적인 법안의 지원을 받아 교육 시스템에 감염시키고 어린이에게 전혀 검증되지 않은 약물을 강요하는 급진적인 젠더 이론에 우리는 절망하고 분노한다.

그리고 외부 힘으로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소셜 미디어의 폭발적 증가가 있다. 이런 콘텐츠와 형식 모두가

중요하다는 뿌리 깊은 믿음에 반대되는 현상이다. 젊은 이와 노인을 가리지 않고 모두가 다 소셜 미디어에 의해서 불안과 중독 증상을 나타낸다.

그리고 전쟁이 있다. 어디에나. 이견 뒤 두터지 때려잡기와 비슷하다. 갈등 하나를 누르면 바로 새로운 갈등이 튀어 오른다. 일상생활 속에서 학살, 비난, 유혈이 난자한 이미지가 우리 주머니 속 스마트폰에서 쉬지 않고 고개를 내민다. 그리고 직장이 있다. 그것은 우리의 시간과 가치를 더욱 침해한다. 인사 부서는 우리의 믿음에 반하는 신념에 대해서 충성과 동맹을 요구한다. 승진이 뜰 수 있는데, 목사님이 전도하라고 했다고 회사 휴게실에서 예수님에 관한 대화를 나눌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3면으로 계속)

어버이를 기리며



난석 석정희(시인)

어버이날에

우리에게 어른이 있어 누구를 이룰까

어머니 아버지 아니면 하늘 섬겨 올바르게 사는 길 어찌 알리요

생애를 사시는 험한 길 세상의 슬픔 속에도 자나 깨나 자식 뒷바라지 우리를 마음에 하늘 향한 창문 하나 달아 주시고

손 모으시고 미소를 심으셔서 나이 들어 깨닫는 깊은 곳에 뿌리 내려 피어 올린

푸른 줄기에 맺혀진 봉오리들 어버이 아니셨을 어디서 피었을까

사철 가리지 않은 부양에 때마다 드리는 기도엔 절절히 자식을 안병 빌으시며

전화 주셔 끝말로 맺으시던 걱정 언제나 습관으로 뺏속 깊이 스며 가슴 속 깊이에선 뜨거운 불길 거친 정금으로 남아 골골지게 멎쳐져 있어

하늘 향한 희망의 꽃이 되어 피어나고 피어나라 길러 주신 어버이 앞에 감사 마음 드리며 고개 숙여 엎드려 인사 드립니다.

석정희

Skokie Creative Writer Association 영시 등단 '창조문학' 시 등단, 대한민국문학대상 수상, 한국농촌문학 특별대상, 세계시인대회 고려문학 본상, 독도문화제 문학대상, 유관순 문학대상, 탐미문학 본상, 글로벌최강문학명인대상, 대한민국예술문학사계대상, 대한민국통일 예술제 문학대상, 에피포도에예술과문학 위원, 재미시협부회장, 편집국장, 미주문협편집국장 역임.



시론 이동진 목사

3면



푸른초장 조웅철 목사

4면



가정의 달 특집 명진 이영숙

16면

할렐루야백화점 2024년 다이어리 | 신년 교회매너 | 현금영수 | 기독교의 모든 것 인터넷 쇼핑몰: BestSaver.us | gospellmail@hotmail.com 뉴 욕: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Tel. (718)762-0011 Text 주문: (347)952-5442, (347)858-6063 뉴 지 지: 5B,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Tel. (201)346-0030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윤새롬 치과 Nouvelle Dental Lily Yoon DMD / 원장 윤새롬 T. 917-908-0075 154-08 Northern Blvd 2H, Flushing, NY 11354 YOON.DENTAL154@gmail.com | WWW.LILYMD.COM

Sharing Bread for Soul (SBS) 생명의 빵 나누기 운동 말씀과 빵을 나누며 영혼을 살립니다 문의 강태광 목사 (323)578-7933

은혜한인교회 42nd ANNIVERSARY 부흥성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 2024. 5.16(목) ~ 19(주일) 16(목) 7:30pm / 17(금) 5:30am, 7:30pm / 18(토) 6:00am, 7:30pm 19(주일) 1부 7:20am, 대예배 11:00am 강사: 이수훈 목사(당진 동일교회) 장소: 은혜한인교회 비전센터 본당 이수훈 목사 프로필과 저서 현) 당진동일교회 담임목사 한국소그림연구원 연구위원장 목회전략연구소의 소장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신학(M. Div)을 졸업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신학 석사(Th. M) 취득 -기도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면 풀린다 -왜 그 교회는 젊은 부부가 물러올까? -하나님 말씀대로 -강한 바보가 되다 -Clear, inivratfoe -꿈꾸는 교회 충추는 하나님 -나도 행복하고 싶다 등등 주일 | 1부7:20am, 2부9:10am, 3부11:20am, 4부2:00pm | 금요성경집회 7:30pm | 새벽예배(일천번제)월~금 5:30am, 토 6:00am 150 S Brookhurst Rd, Fullerton, CA 92833 | TEL: 714.446.1000 | www.gracemi.com

발행인 칼럼

등이 굽어진 이유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낙타는 대단하다. 길도 보이지 않는 뜨거운 사막 길을 묵묵히 걷는다. 사막의 모래 폭풍이 몰려오거나 태양이 작열할 때도 얼굴을 물리거나 몸을 수그리지 않는다. 언제나 앞을 응시하며 거침없이 걷는다. 무릎을 꿇을 때가 있는데 자신의 힘을 위해 서가 아니라 짐을 싣고 내릴 때 주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섬김의 이유가 더 강하다. 낙타는 주인이 지어주는 어떤 짐도 마다하지 않다보니 언제나 그 등에 많은 짐을 지고 걷는다. 더 놀라운 것은 많은 짐을 진 등이 굽어 있다는 것이다. 얼마나 불편할까. 얼마나 아플까. 무심코 보았을 때에는 낙타가 참 못나 보였는데 그 숭고한 자세를 생각하니 이처럼 아름답게 생긴 짐승이 어디 있겠나 싶은 것이다.

등이 굽은 어른들을 볼 때 은근히 속상했다. 왜 등이 저렇게 되도록 놔두셨는지 아쉬움이 컸었다. 그런데 이제야 어른들의 등이 굽어진 이유를 알게 되었다. 김윤도 작가가 쓴 '어머니라는 시를 읽고 나서이다. "새벽기도 나서시는, 칠순 노모(老母)의 굽어진 등 뒤로 지나온 세월이 함경다/ 그곳에 담겨진 내 뉘를 헤아리니 낯날이 시큰하고/ 이다음에, 이다음에 어머니 세상 떠나는 날 어찌 바라볼까/ 가슴에 산(山) 하나 들고 있다" 시인(詩人)은 시인(詩人)이었다. 어머니의 굽어진 등에는 세월의 무게뿐 아니라 자신의 뉘가 있었다고 그렇다. 어른들의 굽어진 등은 세월만이 만든 것도 아니요 어른들의 관리가 부족해서만은 아니었다. 자녀들의 역할(?)이 컸다. 자녀들이 태어날 때부터 시집 장가 간 후에도 얹어 놓은 짐들이 부모님들의 등을 굽게 만든 것이다. 자녀들을 위해 참고 견딘 흔적이 그 굽은 등에 있었던 것이다. 자녀들의 짐을 지고 광야 같은 세상을 거침없이 헤쳐 나가신 부모님들, 그리고 보니 그들의 굽은 등은 숭고하고 아름다웠다.

내일은 아버지 주일이다. 그리고 Mother's Day이다. 그들이 없이 어찌 오늘의 우리가 있었는가. 자녀들은 그들의 사랑을 잘 헤아려드리지 못하고 살아간다. 집안 곳곳에 자녀나 손자손녀들의 사진이 도배되어 있을 정도여도 부모님의 사진은 아예 없거나 찾기 힘든 구석에 놓여 있곤 한다. 한 미군 병사가 군함 갑판에서 웃옷을 벗었다가 그만 웃옷 바다에 떨어뜨렸다. 그 병사는 바다로 뛰어내려 그 웃옷 건졌고 자신도 동료들의 도움으로 다시 배에 올라오게 되었다. 군대에서 상관의 허락도 없이 이런 행동을 하다니 그 벌이 여뻤겠는가. 그러나 그 행동의 이유만큼은 지탄이 아니라 감동을 자아냈다. 그 웃옷 흠여머니의 사진이 있어서 그것을 급히 건지려 했다는 것이 군법회의에서 그의 답변이었다고 한다.

"아버지~, 어머니~" 이 땅에서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다. 가정의 달 5월, 화사한 오월에 오히려 마음이 무겁고 살아계실 때 제대로 효도를 못한 회한(悔恨)까지 담은 그리움에 사무치는 이들도 많이 있으리라. 필자는 특히 그렇다. 물론 어려움 가운데도 효성스런 목회자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필자의 경우에는 목회 길을 가는 것이 무슨 효도의 면죄부나 되는 것처럼 등이 굽어질 정도로 평생 희생해 오신 부모님께 봉양(奉養) 대신 계속 기대기만 했으니 그렇다. 누군가 불렀던 노래, "불효자는 읊니다"가 필자에겐 크게 울림이 된다. 모든 것에 때가 있는 것처럼 효도에도 그 때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에는 좋아하시던 것을 사드릴 돈이 없었고, 지금은 사드릴 수 있는데 부모님이 안 계시니 더욱 마음이 아프다.

칼빈의 편지에서 찾아내는 그의 신학 발전 그의 글은 편지라는 틀에서 볼 때 사도 바울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중요한 인물의 편지 연구는 시간의 간격이나 문화의 차이에 상관없이 오랫동안 소중히 여겨온 관행이다. 종교 개혁 사상가 사이에서는 단연 장 칼빈(1509-64)의 편지가 가장 사랑받는다. 칼빈의 편지는 그의 내면의 목상을 드러낸다. 그는 친구나 교인들과 관계 가운데서 편지를 씌으로써 자기 성찰의 한 형식으로 이를 활용했다.

칼빈의 편지 중 특정 시기(흔히들 말하는 1538-41년의 스트라스부르 시대)를 통해 우리는 그의 신학 발전을 검토할 수 있다.

칼빈은 신학적 의미가 들어 있지 않은 편지는 아예 쓰지 않았다. 이러한 함의는 세 가지 특별한 윤곽, 곧 우정과 교회와 믿음의 연합하는 능력에 대한 칼빈의 견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정

칼빈은 하나님과의 연합이 하나님을 아는 체험적 지식을 가져온다고 믿었다. 그렇다고 그에게 연합의 본질이 다른 사람들과 격리된 일종의 개인 수도원에서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었다.

칼빈은 정기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특별히 사역 중에 생긴 고립이 가져다준 낙담을 이기는 힘을 얻었다. 스트라스부르 시절 그가 느꼈던 고립감을 이내할 힘을 주는 우정이라는 측면을 깊이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하나님과 연합을 경험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백성과 연합하는 것임을 더 깊은 차원에서 깨달았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형제자매를 맺는 깊은 우정과 하나님과의 상호 연합이야말로 삶에서 더 큰 만족감을 누리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요소가 빠진 세상의 우정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칼빈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가 자신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만큼이나 그를 믿는 신자들이 서로 싸워서 찢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점을 표현했다.

교회

(칼빈이 스트라스부르에 있고 윌리엄 파렐이 뉴사텔에 있을 때) 제네바 양 떼를 섬기는 기능적인 목사였던 칼빈은 자신과 파렐이 축복의 전달자로서 제네바 사람들을 각자의 교회를 섬기는 다른 목회자들과 결속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진실하고 우호적인 애정으로 말이다.

칼빈이 부재중에도 제네바 교회에 조언을 했다는 사실은 그가 교회에 대해 느꼈던 친밀감과 청지기직에 대한 영적 의무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한 그의 사고방식을 드러낸다. 그는 멀리 있으면서도 감독자로서 그들을 가르치고 호소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얼마든지 보기에 따라서 뻔뻔스러운 영적 권위로 여겨질 수도 있

는 내용을 썼다. "먼저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부탁하건대 무엇이든지 먼저 그 문제를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고 판단을 내릴 때 조금도 서두르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다 사랑을 바탕으로 서로에게 빛을 지고 있으니,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의 편지는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거리나 물질적 수단에 구애받지 않고 행사하는 진실한 영적 책임으로 보아야 한다. 칼빈은 편지를 통해서도 친교의 유대(그리고 심지어 어느 정도의 권위)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했다. 그에게 교회는 지역적이면서도 세계적이었다. 그러한 연결이 가능했던 건 신앙의 역할에 대한 그의 개념 때문이었다.

믿음의 연합

칼빈에게 믿음이란 "신자 개인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활동"을 통해 주어지는 선물이지만, 동시에 교회의 삶과 하나님의 섭리라는 손길을 통해서 얼마든지 성숙한 차원에서 체험되고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도 했다. 비록 신앙의 형제자매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친교는 중단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기회가 되는 대로 기꺼이 온 마음을 다해 서로 나누어" 하는 대상이었다.

(9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가톨릭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Store
각종 행사 기념품 주문 제작
성화, 성구액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유관
(323) 737-7699

교회인쇄물·헌금봉투·배너
Order Online 30% LOW PRICE
in2printing.com
인투인쇄 T. 718-425-8505

www.laguesthouse.com
LA 호텔식 하숙 GUEST HOUSE
965 Fedora St. L.A., CA 90006
Email: laguesthouse@live.com

교회창립감사예배

2024년 5월 19일(주일) 오후 4시

더블레싱교회 예배실 530 N. Dale Ave, Anaheim, CA92801



THE BLESSING CHURCH (더블레싱교회)는 2024년 1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한 성도들이 기도 가운데 첫 예배를 드리며 시작한 교회입니다.

우리교회는 개혁주의 신학과 복음주의 신앙을 바탕으로 5가지 핵심가치를 교회의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5대 핵심가치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 드리는 THE BLESSING CHURCH에 방문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의 소망이요 생명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삶의 순례의 여정속에 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담임목사: 파세원



교회 영어 이름 'THE'의 첫 글자 'T'를 십자가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14:6

교회 영어 이름 'BLESSING'의 첫 글자 'B'를 사랑모양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3:16

당신의 교회, 어떻게 미래를 대비할 것인가?

(1면에서 계속)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누가 백 투 더 퓨처의 경험을 원하지 않을까? 2054년으로 달려가서 폭넓게 메모하고 아이폰으로 비디오를 캡처한 다음 돌아와서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비하고 싶다. 그렇게만 된다면, 다가오는 폭풍에 맞서 모든 공격을 무너뜨릴 수 있다. 그게 아니라면, (혹시 아는가?) 놀랍게도 우리를 기다리는 미래가 장밋빛이기에 얼마든지 긴장을 풀 수도 있다.

초조한 교회

이러한 급격한 변화 속에서 어떻게 해야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삶을 지킬 수 있도록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을까? 모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

교회는 긴장하고 있다. 성에 관한 진보적 사상에 굴복한 신학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한다. 십자가에 성조기를 두르는, 점점 더 강해지는 민족주의의 포용에서도 그 점을 본다. 아이

스포츠카는 없었다. 그러나 그들이 불확실한 미래로 나아갈 때 함께 하실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계신다. 거짓 신, 거짓 희망, 이방 국가, 역사와 결과를 조작하려는 혼합주의, 이스라엘은 이 모두를 거부해야만 했다. 유일하고 참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미래를 보장해 주셨다.

미래가 보장된 교회

블랙스완 사건(팬데믹 2.0, 혹시 아는 사람 있을까?)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더욱 양극화되고, 더욱 고립되고, 더욱 무의미해져서 절망에 빠지게 될 것은 분명하다. 우리를 기다리는 게 행복한 미래는 아닌 것 같다.

그러나 교회에는 큰 무기가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복음을 통해 교회는 환멸에 빠진 많은 이웃에 의해 재평가되고 있는 문화를 더 확장하고, 더 목적성을 부여하고,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바꿀 수 있다. 이미 기독교의 종말이 왔어야 한다고 자신

의 눈에 나타난 종교의 미래는 그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적어도 그의 눈에 그런 주장은 아직 단언할 수준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백 투더 퓨처이다. 우리는 어떻게 교회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을까? 생태학적 위험, 기술적 변화, (때때로 모순되는) 의미의 새로운 원천을 찾는 탈기독교 사회의 양극화 효과 등 다양한 압력 지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용감하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과 지금까지 우리에게 유익했던 삶의 방식을 두 배로 강조해야 한다. 이러한 문화 궤적이 계속된다는 가정하에, 우리는 2054년에 필요한 공동체적, 도덕적, 신학적, 관계적, 그리고 지적 신용을 미리미리 은행에 투자해야 한다.

그러므로 취소 문화가 팽배한 사회에서 유일하게 용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교회, 점점 더 많은 사람이 혼자 살아갈수록 더 깊은 공동체를 실천하려는 교회, 자기 관리를 숭배하는 시대에 값비싼 관대함을 제공할 뿐 아니라 테크니과 기술에 굴복해 버린 문화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별하

시론

오히려 약함을 감사하는 은혜로



이동진 목사 (성화장로교회)

한국프로야구에 본격적으로 로봇심판이 등장했다. 타자들의 짧게 끊어 친 타구가 화살처럼 날아가는 모습이나 홈런타자의 거대한 포물선 홈런도 그렇지만 야구의 특별한 묘미 중 하나는 주심(主審)의 오펜소리이다. 멋진 제스처와 함께 외치는 '스트라이크'의 소리는 야구경기에서만 볼 수 있는 통쾌함이다.

야구 규정은 스트라이크 존(strike zone)을 '선수의 유니폼 어깨 윗부분부터 바지 맨 윗부분인 허리 벨트라인까지의 공간 수평선을 상한선으로 하고, 무릎의 아랫부분을 하한선으로 하는 홈베이스의

가상의 입체공간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정해놓은 공간을 심판은 눈(肉眼)으로 한다. 즉, 가상공간에 들어오는 공의 위치에 대해 오른손을 들어 스트라이크를 외치는 심판은 그 경계의 절대 주관자이다. 물론 최근에 비디오판독 시스템을 도입하긴 했지만, 그래도 한번 선언된 심판의 판정은 웬만해선 바뀌지 않는다. 그런데 그 절대적인 심판보다 더 높은 권세가 등장했다. 바로 한국 프로야구 1부 리그에서 전격 도입해 시행하기 시작한 로봇심판이다.

정식 명칭은 자동투구판정시스템(ABS-Automatic Ball-Strike System)이라고 하지만 알기 쉽게 로봇심판이라고 부르는 이 시스템을 1부 리그에서 도입한 건 한국이 처음이라고 한다. 아무튼 이제 한국 야구 1부 리그의 스트라이크 선언자는 심판이 아니라 로봇이 차지하게 되었다. 아직, 이에 대한 반응은 찬반으로 나누어져 있다. 환영하기도 하고 거부감을 표출하기도 한다.

사실 로봇심판에게 판단을 맡겨야 하는 처지가 된 야구선수들과 심판의 반응을 보면 묘한 기분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로봇심판인 ABS의 등장이 아직은 당황스러운 것이 현실이다. '정확'이라는 점에서는 인정하겠지만, 경기를 리드해가는 포수의 위치와 지략, 글로브를 낀 손의 방향, 경험과 경력 등으로 자부심을 갖고 선언하던 심판들이 만들어내던 '야구 속 인간미(?)'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사람의 시력보다 더 정확할 수밖에 없는 카메라가 공의 궤적을 추적해 판정을 내린 뒤 선언권이 있는 '인간심판'에게 전달하는 이 시스템은 사실, 우리 생활과 생각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인공지능(AI)의 위력(?)을 새삼 실감케 한다.

이러한 삶 속의 또 하나의 변화, 야구계의 소식에 교회는 어떤 반응을 가져야 하는가? ABS의 도입으로 야구경기가 더 재미있어질지 너무 삭막해질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적어도 심판의 당당한 스트라이크 소리 더 이상 야구경기에서 들을 수는 없을 것 같다. 삼손처럼 이미 힘을 빼앗긴 심판의 선언! 야구는 과학이 아니라 스포츠이다. 몸을 단련하고, 감정을 발산하고, 늦은밤 경기를 마치고 도취한 승리감과 패배한 아픔을 밤 사이에 씻어내고 새 아침을 또 맞이하는 스포츠인데 로봇심판으로 인해 과학적으로 더욱 정확해지겠지만 설명할 수 없는 관중의 마음 한 구석은 슬프다.

더 정확하게, 더 완전하고, 더 강하게 만들어가려는 세상에 하나님은 여전히 가장 약한 모습으로 인간을 탄생시키신다. 태어나자마자 걷고 달리는 동물과 달리 돌이 되어야 겨우 걸음마를 시작하는 연약함으로 태어나는 인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가정의 달, 어린이의 약함과, 새로 이론 신학자 정의 부조함과, 나이 들어도 여전히 모자란 인성을 가진 인간이기에 오히려 감사하다. 로봇처럼 정확하지 못하고 심판처럼 때로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그 형상을 닮아가려 애쓰는 존재임을 감사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바란다.

djlee7777@gmail.com

도록 하는 교회를 세우는 데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겠다고 결심하자. 바로 그때 믿음에 집중하고, 모든 희망과 관심을 '잘 꾸민 집'(학 1:4)에 두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느낄 것이다. 더 깊고 더 강한 기독교가 답이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

다시 미래로

만약에 당신이 그 차에 뛰어들어 2054년으로 향한다면, 충실하고 번성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고 많이 놀랄 것이다. 현재의 우려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당신도 그 일에 동참하고 싶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아직 대학에 다니면서 여전히 당신의 믿음에 적대적인 젊은 비그리스도인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지금은 기독교에 적대적인 그들이 2054년에는 장로가 되고 예배 인도자가 될 수도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

by Steve McAlpine, TGC



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예 공립 학교에 보내지 않는 부모들이 늘어난다. 내가 아는 한 가족은 아예 보수적인 폴란드로 이주하는 쪽을 택했다. 복음주의의 자 신자인 그 부모는 확고한 로마가톨릭 국가이지만 폴란드가 아이들에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도 폴란드가 미국처럼 되기 전까지 해당하는 이야기이다. 조만간 폴란드도 미국처럼 될 텐데, 그때는 또 어디로 가야 할까?)

하나님 백성에게 초조함은 새로운 게 아니다. 선지자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에 폭풍이 닥쳤을 때, 많은 사람이 가장 먼저 본능적으로 당시의 백 투더 퓨처를 활용했다. 영매, 강령술사, 그리고 거짓 신을 의지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미래가 어떻게 될지 말해 주었다(사 8:19). 물론 거기에는 대가가 따랐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그런 거짓 희망을 믿지 말고 오로지 자신만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에게 앞으로 멸망할 예루살렘의 운명을 보여주는, 미래로 가는

있게 예측했던 사람들은 지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다. 실제 역사 속에서 존재한 예수라는 인물에 기초를 둔 복음의 초월적 메시지는 뿌리가 없는 우리 시대를 살아가도록 하는 강력한 배경이다.

The Atlantic에 기고한 팀 켈러의 마지막 글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미국 교회는 (그리고 서구 세계 전역의 교회가) 부흥을 맞을 것이다. 지금 상황은 너무나도 심각하게 분열되고 불확실해진 상태이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한 때 "물었다가 멈췄거나" 또는 "처음부터 아예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해서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영국 작가 저스틴 브라이어리의 신간 The Surprising Rebirth of Belief in God: Why New Atheists and Secular Thinkers Are Considering Christianity Again(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놀라운 재탄생: 왜 신무신론자와 세속 사상가들이 기독교를 다시 바라보는가)는 이런 켈러의 견해를 확장한다. 그러나 리처드 도킨스

2024년 한미장로교 장학재단 장학생선발공고

KOREAN-AMERICAN PRESBYTERIAN SCHOLARSHIP FUND 2024

목적 | PURPOSE

한미장로교 장학재단의 목적에 준하며, 재미 한인 교회와 재미 한인 공동체를 위해 강령한 사명 의식을 가지고 열성으로 봉사하려는 인재 발굴과 양성.

The objective of the Korean-American Presbyterian Scholarship fund is to discover and to cultivate the future leaderships of the Korean-American churches & community.

신청자격 | ELIGIBILITY

미주지역에 있는 한인장로교회에 소속한 학생으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구비하신분 (본 장학금을 이미 받으신 분은 제외됨).

The Korean-American Presbyterian students who meet the following qualifications.

- ① 기독교 신앙이 투철하고 신앙생활이 독실하며 교회와 사회에 모범이 되는 분으로 교회와 사회를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봉사하려는 학생에 한함.
Who upholds the sound faith in Jesus Christ practices the sincere Christian life sets an example in their local churches and community commits to serve church and community with a strong conviction of calling.
- ② 현재 대학교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에 한함.
Who has been enrolled in an accredited college, university or graduate school (Master's level) in the current academic year.
- ③ 신학계통의 학문을 공부하는 학생은 미국장로교(PCUSA) 산하 신학교에서 M. Div.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에 한함.
For theological students and the M-Div. course at the PCUSA theological seminary.
- ④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소지한 학생에 한함.
Who is a US citizen or permanent resident

제출서류 | APPLICATION

특별한 신청 양식은 없으나 다음 1~5번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Application: No official form, but the following documents must be accompanied:

- ① 명함판 사진이 첨부된 본인 이력서 (연락 가능한 주소와 전화번호 필수)
A resume with a photo attached (current address and phone number included).
- ② 신앙고백적 사명감과 장래 비전에 관한 진술서 (한글 또는 영문 2페이지)
A personal statement of faith, conviction of calling, vocational vision (Either Korean or English in 2 pages).
- ③ 본인 또는 부모님의 2023년 연방 소득세 1040, 1040A, 또는 1040 EZ사본
Applicant's or parent's copy of 2023 Federal Income Tax 1040, 1040A or 1040EZ.
- ④ 추천서 2통
 - (1) 소속 또는 출석하는 장로교회 담임목사님 추천서
A Presbyterian pastor's letter of recommendation with which one has been affiliated.
 - (2) 현재 재학중인 대학 또는 대학원의 교수 추천서 1통
A recommendation from an official academic institution professor.
- ⑤ 본인 재학중인 학업 성적표
Official transcripts of current academic year mailed directly from the institution to the office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Scholarship Fund.

* 위의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본회 사무실에 직접 우송해야 합니다.

신청마감 | DEADLINE

신청서 접수 및 우편 소인 마감: 2024년 7월 25일 (접수서류 반환치 않음)
July 25th, 2024 Date of stamp (All submitted documents not be returned).

장학금 내역 | A LIST OF SCHOLARSHIP

번호	장학금 명	금액
1	김득렬 목사, 김복신 권사 기념 장학생 1명 <small>The Rev. Tulyul Kim & The Kwonsa Bockshin Kim Memorial Scholarship for 1 student</small>	\$2,000.00
2	김득렬 목사 가족 특별 장학생 1명 <small>The Rev. Tulyul Kim's Family Special Scholarship for 1 student</small>	\$2,000.00
3	주형욱 목사, 손솔수장로 기념 장학생 1명 <small>The Rev. Hyungok Joo, The Elder Chulsoo Son Memorial Scholarship for 1 student</small>	\$2,000.00
4	주요남 장로 기념 장학생 1명 <small>The Elder Yo-nam Joo Memorial Scholarship for 1 student</small>	\$2,000.00
5	이민근 장로 기념 장학생 1명 <small>The Elder Minkeun Lee Memorial Scholarship for 1 student</small>	\$1,000.00
6	왕수복 장로 장학생 1명 <small>The Elder Soobok Wang Scholarship for 1 student</small>	\$1,000.00
7	홍길두 장로 기념 장학생 1명 <small>The Elder Gildoo Hong Memorial Scholarship for 1 student</small>	\$1,000.00
8	김광열 장로 기념 장학생 1명 <small>The Elder Kwang Yeal Kim Memorial Scholarship for 1 student</small>	\$1,000.00
9	신봉생 권사 기념 장학생 1명 <small>The Kwonsa Bongssang Shin Memorial Scholarship for 1 student</small>	\$1,000.00
10	이병열 장로 기념 장학생 1명 <small>The Deacon Bmyul Yi Memorial Scholarship for 1 student</small>	\$1,000.00
11	New Life 헌신 한인 장로교회 장학생 1명 <small>New Life Lansing K.P.C. Scholarship for 1 student</small>	\$1,000.00
12	여명자 목사 장학생 1명 <small>The Rev. Myungja Yoo Scholarship for 1 student</small>	\$1,000.00
13	김혜란 권사 장학생 1명 <small>The Kwonsa Haeran Kim Scholarship for 1 student</small>	\$1,000.00
14	미래 장학생 1명 <small>Future Scholarship for 1 student</small>	\$1,000.00

신청서 접수 | MAILING ADDRESS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Scholarship Fund
1142 Canterbury Cir. Canton, MI 48187
E-mail: kapsf2020@gmail.com, 문의: 734-693-1888

장학금 수여 | THE DATE OF SCHOLARSHIP AWARD

2024년 8월 31일 - 선발된 장학생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직접 발송함.
(장학금 수령자는 장학금 기증자에게 반드시 감사편지를 보내야 합니다)
August 31st, 2024 by mail (Please return your feedback letter with a thanksgiving expression)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SCHOLARSHIP FUND
회장: 김중대 장로 | 총무: 안덕치 목사 *본 장학회에 관한 기타 정보는 크리스찬저널 웹사이트 kcjlogos.org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유럽목회자세미나연구원 원장)

영성 회복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어린 이 주일과 아버지 주일도 함께 자리하고 있는 달이다. 시대의 변화 때문인지 유교의 전통적 가치관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신문에서 언급하는 대로 노인은 늙어가고 있고 상대적으로 어린이들은 줄고 있다고 하고, 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가치 면에서 하락함을 의미한다. 아무리 뛰어난 예술가라고 해도 작품이 다작일 때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것처럼 말이다. 고로 요즈음은 효도란 명사는 깨게 목은 단어로, 60~70년대 영화에서나 그 명맥을 찾아볼 수 있는 단어쯤으로 기억되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성경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부모 공경은 땅에서 잘되고 복을 받는 길임을 말씀한다. 공경하지 않는 자에게 성경은 저주를 선포한다. 그런 자는 살아갈 의미와 목적이 없는 인생이라는 말씀이다. 잠 30:17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런데 성경에 자녀의 공경을 받는 아름다운 정경이 있다. 창세기 48장에, 믿음의 조상 야곱에 대해 생애의 마지막 순간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아들 요셉의 초청을 받고 애굽으로 거처를 옮긴 야곱은 거기서 17년을 살았고 세상을 떠나야 할 시점을 맞았다. 요셉은 아버지가 떠나실 것 같다는 기별을 받고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왔다. 그리고 두 아들에게

축복기도를 부탁드렸다. 요셉은 제국의 실세 총리였기에 원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런데도 선지자인 아버지의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믿었기에 두 아들에게 축복기도를 간청드렸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영성을 대단하게 여겼다. 눈이 어두워 앞을 보지 못하는, 어찌면 뒷방 늙은이 같은 상황의 아버지였지만 말이다. 그러나 영적 안목이 있었던 요셉은 아버지의 영적 질량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인지하였기에 자신의 두 아들에게 아버지의 영성을 물려받고 싶어 했다. 놀라운 것은 아들들이 많았으나 야곱의 축복을 받기 위해 찾아온 자는 요셉 한 사람밖에 없었다.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하는데, 아무리 삭막한 시대라 해도 아버지가 영적으로 탁월할 때, 자녀들은 그를 두려워하고 경외

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요셉은 지상에서 마지막일 수 있는 아버지께 존경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절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찌면 요셉은 화려한 관복을 차려입었을 것이다. 눈이 보이지 않고 거동도 불편한 늙은 아버지, 그 아버지에게 화려한 관복을 입은 애굽의 실세 총리가 큰절을 올리는 모습은 주변 사람들이 보았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일어나 침대에 앉은 아버지에게 두 아들을 데리고 다가갔다. 그리고 아버지의 오른손을 이끌어 장자 므낫세의 머리에 얹어드렸고, 왼손을 이끌어 차자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어 드렸다. 그러자 요셉이 엎어 드린 두 손을 잇바꾸는 것이었다. 그런 자세는 아버지에게는 불편했다. 두 팔을 엑스 표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요셉은 당황했다. 그래서 만류했다. 아버지,

그리하지 마소서, 오른손을 장자의 머리에 얹으소서. 그때, 야곱은 시퍼렇게 눈을 뜬 사람처럼 외쳤다. “나도 안다, 나도 안다.” 안다는 말은 표피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영역까지 알고 있다는 선언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게 하셨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야곱은 운명하는 순간까지 영적으로 대단했다. 최상의 여유를 누리는 애굽의 삶에서도 영적 진보에 게으르지 않았다. 야곱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았던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마지막 순간을 생략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야곱의 마지막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효도를 바라기 전에 영적충만이 우선임을 교훈하시는 의도가 아닐까?
chiesadiroma@daum.net

푸/른/초/장

조응철 목사
(갈보리장교회)



가정생활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교육입니다. 교육을 위한 부모들의 노력과 비용은 엄청나게 듭니다. 교육이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교육은 개신이나 개조(Recreation)가 아닙니다. 기독교 교육은 새로워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정에서 제일 필요한 교육은 새로 나는 것(Regeneration)입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순종”해야 할까요? 가정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보든지 말든지, 어디에서나 “순종”해야 합니다. 어떻 경우에서도 부모를 부

“순종”보다 한층 더 높은 것입니다. 말로 “공경”하고 행실로 “공경”하고 마음가짐으로 “공경”하고 표정으로 “공경”하고 물질로 “공경”하십시오. 기분 나쁘다고 머리 싸매고 자리에 누워버리거나 밥을 먹지 않거나 입을 다물고 자기의 기분

“경”해야 합니다. 특별히 부모님께 대한 이야기를 자손들에게와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들려주므로 공경해야 합니다.

(3) 부모님들이 점점 늙어가시면 부모님들을 잘 모시고 편안하게 해드리고 모든 괴로움을 참고 잘 돌봐드리므로 “공경”해야 합니다.

(4) 자녀들은 항상 건강하고 품행을 단정히 하여 평생을 살므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5) 부모님들이 물질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또 부모님들이 늙으셨을 때 궁색하거나 자식들의 눈치를 보며 기가 죽지

공경하십시오.”

3. “아비들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 사랑을 게을리 하면 여러분의 자녀를 불행하게 만들기 쉽습니다.

여러분이 자녀 사랑을 게을리하면 훗날에 여러분의 자녀가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몸과 마음, 특별히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십시오. 자녀들의 육신과 영의 온전한 성장을 위하여 부모들이 할 일을 절대로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오, 자녀들을 성가시게 하지 말고 말다툼을 하지 마십시오. 이런 일은 여러분의 가정을 비극으로 몰아가는 위험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때때로 부모의 욕설과 거친 말로 인해 무서운 죄 가운데 빠지기 쉽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의심하는 자녀는 자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오직 주의 교훈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언제부터 이런 교양과 양육을 시작해야 하나? 어릴 때부터 생명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해야 합니다. 늦으면 늦어질수록 좋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는 영아부 주일학교, 유치부 주일학교, 유년부 주일학교, 그리고 중고등부 주일학교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길러야 합니다. 가정에서 기독교 신앙생활을 연습 실행 시키시기 바랍니다. 기도 생활을 연습 실행시키십시오. 찬송을 온 가족이 함께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십시오. 온 가족이 함께 가정재단 가정예배 쌓는 일에 정성을 다하십시오.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온 가족이 함께 드리십시오. 함께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에 솔선수범하십시오.

부모님들은 항상 시간마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자녀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나가서 주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자녀교육을 위하여 교육학도 심리학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자녀교육을 위한 가장 권위 있는 유일한 책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사 55:6-7)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지성소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교실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온 가족이 다 함께 찬송가 부르며 주님께 감사하는 신령한 음악회 장소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세상사람 누가 보더라도 주 예수님 모시고 사는 거룩한 집으로 삼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가정은 그리스도의 왕국이 될 것입니다.
drjho@hotmail.com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

에베소서 6: 1-4



1.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순종”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순종”은 옳은 일, (의로운 일)입니다.

자녀들은 왜 부모를 “순종”해야 하나?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임태하고, 낳고, 양육하고, 교육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해 주고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은 다른 누구보다도 자기 자녀들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순종을 원하지 않으시고 자녀들이 선하든지 악하든지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순종”해야 하나? 항상 “순종”해야 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 잘 살든지 가난하든지, 성공할 때나 실패했을 때, 건강하거나 병들었을 때 모든 경우에서 부모님께

크러워하거나 부끄럽게 해서 안됩니다.

2.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나이 어린 자녀들이나 성인된 자녀들이 다 함께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자녀들의 말과 행동, 품행은 곧 부모님을 영광되게 할 수도 있고 또한 부모에게 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경”은 “

나쁜 감정을 부모에게 보이는 것은 부모님께 큰 죄를 짓고 있는 “공경”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경해야 할 것입니까?

(1) 언제 어디 서나 어리든 지 작든지, 청년이든지 장년이든지 노년의 모든 경우에서 항상 존경하고 부모 대접을 잘해야 합니다.

(2) 부모와 마주 앉아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가지므로 “공

양도록 잘 살피서 풍요하게 살며 활발하고 기쁨에 넘치는 삶을 보내도록 돌봐드림으로 “공경”해야 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습니까? 이 부모님은 육신의 부모만이 아니라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말을 맞이하여 자신을 깊이 반성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하도록 “부모를

오, 자녀들을 너무 지나치게 거칠게 잔인하게 다루지 마십시오. 자녀들을 위한 부모의 희생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도 부모들은 자녀들 앞에서 자기의 희생을 자랑하거나 과거 자기의 희생을 눈물로 호소하지 마십시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녀들에게 부모의 은혜와 공로를 갚아야 한다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그들의 영향력은 미국의 다른 주를 휩쓸 게 될 것인가?

인신매매 범죄를 "의무 종신형"에 처하여,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새로운 "아동 인신매매 금지" 법을 통과시킨 앨라배마주!

인신매매 조사기관인 Deliverfund 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매년 적어도, 15,000 명에서 50,000명 이상의 여성과 아동이 성노예로 강제 동원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불법으로 들어오는 문들이 너무 많기에, 전체적 숫자를 확실히 보기는 힘들어도, 성매매를 집중적으로 전문화 하고 있는 몇 군데의 조사를 보면, 보건복지부의 한 연구에서는 24만 명에서 32만 5천 명 사이로 추정했고,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보고서에서는 10만 명에서 30만 명 사이로 추정했습니다.



원 법안 House Bill 42로도 알려진 'Sound of Freedom Act "법안"에 서명했다.

참고로, 'Sound of Freedom'은 사실 영화제목입니다. 2023년에, 인신매매의 실체를 고스란히 드러냈을 뿐 아니라, 특별히 아동 인신매매가 얼마나 지독하고 비인간적이며, 잔인하기까지 한 건지, 다큐멘터리 내용들을 넣어서 만든 영화를 통해, 아동인신매매의 실체를 드러내어, 미국뿐 아니라 외국까지 번져 사람들을 일깨운 영화 제목입니다.

아이비 주지사는 성명에서 "미성년자 인신매매는 미국에서 가장 극악무도하고 가슴 아픈 범죄 중 하나이며, 우리 중 가장 무방비 상태인 미성년자들이 피해자이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가장 가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며, "지금까지 안타깝게도 우리는 바로 이곳 앨라배마에서 인신매매 범죄자들이 계속해서 이땅의 법을 무시하는 사례를 목격해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을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특정 조건 하에서 인신매매를 더욱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기존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개인이 "고의로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노동력을 착취한다거나 성노예로 삼는 경우, "미성년자를 성적인 일에 종사하게 할 목적으로 고의로 획득, 모집, 유인, 권유, 유도, 위협, 고립, 은닉, 감금, 구속, 운송, 제공 또는 유지하는 행위" 를 법안 본문에서 모두 포함시켜 죄로 정의하고 있으며, "미성년자 또는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개인과 성행위를 하기 위해 금전적 대가 또는 기타 가치 있는 것을 고의로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시도하는 경우"라고 법안은 인신매매 죄를 범하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앨라배마에서 작년에 아동 착취 혐의로 기소된 남성 30명이 체포되었다고

CBS 42미디아가 보도했습니다.

여기에는 터스칼루사에서 17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후 1급 인신매매 혐의로 기소된 24세의 캘리포니아 출신의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 한 명이 체포된 것도 포함되었습니다.

이 남성은 1급 인신매매 외에도 17세 미만의 아동이 음란한 행위를 하는 모습을 담은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CBS 42에 따르면 에폰이라는 자는 아동을 온라인을 통해 유인하고 아동에게 음란물을 컴퓨터로 전송한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14살로 추정되는 소녀를 만나기 위해 팹햄으로 여행한 후 1급 인신매매 미수 혐의로 기소된 71세 남성과 관련된 것인데, 당시 71세씨가 나 되었다면 제임스 매튜 밀러는 그가 막히게도, 1급 인신매매 미수 혐의 외에도 불법 성행위를 위해 아동을 만나려고 시도한



전력뿐 아니라, 아동을 온라인을 통해 유인한 혐의로 지난 7월 기소되었다고 CBS 42는 보도했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팹햄 경찰서의 형사들은 국토안보부 인신매매 전담반에 배정된 앨라배마 제17 사법 순회 수사관들과 협력했습니다.

"이런 악행들을 더 이상은 용납할 수 없으며, 앨라배마는 이제 미성년자 1급 인신매매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 가장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미국을 만드는데 선두하고 있다." "그들은 감옥에서 평생을 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법은 범죄자들이 우리 주에서 아이들을 해치려 하기 전에 범죄자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아이비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TVNEXT.org 에서 보세요.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셀비처사랑교회 / (310)749-0577 TLspc0316@gmail.com

Q: 한번은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중에 뉴에이지 운동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뉴에이지 운동이 무엇이며 그것의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로미타의 권장로가

뉴에이지(New Age)

A: 뉴에이지(new Age)운동은 새 시대 운동 혹은 새 세대 운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반기독교적 운동이기에 그 정체를 바로 알고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 영화와 서적, 음악 등을 통해 우리에게 깊숙히 들어와 우리 인간의 영혼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솔직히 잘 모릅니다. 영화는 스타워즈, ET, 사랑과 영혼 등입니다. 테라피 음악의 많은 부분들이 뉴에이지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뉴에이지 운동이란 무엇인가?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간단히 요약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뉴에이지 운동은 현대과학, 점성술, 자연숭배, 영지주의, 동양의 신비주의들이 합쳐진 혼합 종교체제로서 특히, 힌두교와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힌두교의 구원관은 극기와 명상을 통하여 얻은 지식으로 업의 수레바퀴로부터 해방되어 브라만으로 환생하면 된다는 것인데 그래서 명상과 수련을 통하여 이를 개발하면 인간이 신의 경지에 이를 수 있으며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뉴에이지 운동은 반성경적이며 적그리스도적입니다. 뉴에이지 운동은 다가오는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에 없애고 긴장없는 유토피아의 세계로 도망함을 인하여 그 불안함을 해소하려는 시도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운동에 빠지는 이유는 장래의 번영과 성공을 약속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죄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아도 해방감과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첫째, 뉴에이지 운동은 그리스도가 없는 복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회개나 중생없이도 얼마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약속합니다. 죄를 믿지 아니하니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빛의 소리의 김형린이란 분이 과거 국민일보에 연재한 글에 의하면 뉴에이지의 근본정신은 "예수님 없이도 이 세상은 낙원이 될 수 있으며 인간은 신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을 분리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배후에 깔아 놓은 사탄의 교묘하고 사악한 전략입니다.

둘째, 뉴에이지 운동은 무시피에 대한 경배를 주장합니다. 마귀를 경배합니다. 뉴에이지 운동의 사악함은 마약사육을 권장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뉴에이지 운동은 장차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여 세계단일 정부를 만들도록 길을 닦는 운동입니다. 뉴에이지들은 명상을 강조하면서 그래서 어떤 종말자로부터 통찰력을 얻어야 하는데 그 종말자는 사탄입니다. 그들은 성경이 정승 숫자라고 못 박은 666을 성스러운 숫자로 봅니다. 이들은 반만 그린 무지개와 모든 것을 본다는 피라미드의 눈꼬리를 문 뱀, 불교의 만자 유니콘(뿔이 이마에 달린 말) 각종 원형들을 사용합니다. 평화가 오려면 세계단일정부가 세워져야 하고 모든 종교가 통일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고 그거 정지 종교 경제를 통합한 패권을 잡은 지도자가 되어 교회를 핍박하고 죽일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뉴에이지 운동은 한마디로 인본주의의 옷을 입은 사탄운동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를 적으로 봅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Table listing various churches in California with columns for church name, pastor, and service times. Includes churches like 감사인교회, 나성순복음교회, 남가주든단교회, 남가주사랑의교회, 대동장로교회, 미주양교회, 미주평안교회, 복음장로교회, 베델한인교회, 세계사망교회, 세계선교교회, 실비치 사랑교회, 열매교회, 엘피스지역원, 은혜한인교회, 주님세운교회, 주님의영광교회, 좋은마음교회, 코너스톤 교회, 토렌스조은교회, 평양교회, and 미주크리스천신문 후원교회.

사/모/단/상



송정임 사모 (버지니아 St. John's UMC)

알러지(알레르기)를 위하여

대한민국의 수리적 위치는 위도 북위 33도에서 43도 (33N~43N)로 북반구위 중 위도에 위치하기 때문에 4계절이 뚜렷한 냉·온대 기후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위도와 비슷한 나라는 포르투갈, 에스파냐, 이탈리아, 알바니아, 그리스, 터키, 중국, 일본 등이 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위도와 비슷한 위치의 세계 도시는 리스본, 발렌시아, 아테네, 샌프란시스코, 세인트루이스, 워싱턴DC이다. 특별히 세계 전역에 흩어져 살고있는 이민자들은 고국과 비슷한 위도의 나라와 도시의 기후와 자연에서 더욱 편안함을 느끼고, 적응도 더 빠르게 잘하며 살아간

다는 글을 읽었다. 내가 사는 이곳 노던버지니아도 뚜렷한 4계절과 서울과 흡사한 기후로 많은 한국 이민자들이 고국의 기후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봄이 되면 화려하게 만발하는 꽃들은 '복숭아꽃 살구 꽃 아카진달래 개나리' 등 그리운 고향 봄 동산을 눈앞에 다시 펼쳐주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계절이 된다. 각각의 나무와 풀들에 새겨진 단 하나라도 같은 색과 모양을 찾을 수 없는 초록과 다양한 색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자연들이 각각의 때와 창조 질서에 맞게 고유하게 자리남에 경이로움을 느끼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

게 된다. 에이취!! 옛취!! 연달아 오는 재채기와 흐르는 콧물에 입을 막고 닦느라 분주하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알러지를 모르고 또 어떤 증상도 없이 살아왔는데, 올 봄 처음으로 심하게 눈이 간지럽고 재채기와 훌쩍훌쩍 콧물이 심하다. 3~5월 많은 이들이 봄꽃가루 알러지로 고생하는 모습을 보았었고 올해 특이 고온현상으로 워싱턴DC 벚꽃도 이례적으로 일찍 피었다는 뉴스와 알러지가 심한 봄이 될 것이라는 뉴스를 읽었는데, 나에게도 처음 알러지 증상이 나타나고 일상에 불편함을 주는 훌쩍거리리는 코와 간지러운 눈을 비비며 병원에서 알러지

검사를 받았고 전형적인 봄철 꽃가루로 인한 Seasonal Allergy 라는 진단과 약을 처방받았다. 처음 겪는 알러지 증상에 자연스럽게 이 질환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보게 되었다. 알러지는 그리스어 'αλλεργία'-알레르기아('이상작용'이란 뜻으로, 형용사 ἄλλος(allos): 다른, 변형된 것)에서 파생된 단어에서 유래한 이의 독일어 표기인 'die Allergie'가 외래어로 들어와 쓰이는 케이스이고, 영어발음인 '알러지'(allergy)로 표현한다. 알러지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폴른닷컴(Pollen.com)에 따르면 내가 사는 워싱턴지역은 꽃가루 지수가 7.3-9.6으로 높게 나타났고, 이 지수는 알러지 경보를 위해 사용되는 수치로 경기 1읍 방미터당 꽃가루 포자의 수를 사람에게는 아무런 자극이 되지 않는 특정 물질에 대해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각각 개인의 고유한 현상을 말한다. 현대사회의 알러지를 일으키는 요인은 너무 많고 다양한데, 대표적으로 꽃가루, 털, 음식(계란, 견과류, 곡식 및 유류, 유제품), 햇빛 등을 꼽고 있다.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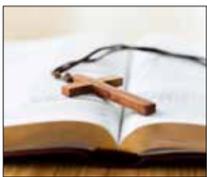
경오염이 빨라지면서 지구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더 많은 알러지 유발요인들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다. 전문의들은 알러지 반응 검사를 통해 정확한 알러지 유발 사인을 알고, 각각에 맞는 유발요인들을 멀리한 뒤 의사 처방에 따라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증상이 심한 경우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아침과 저녁, 바람이 부는 날에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운전 할 때나 밤에 잘 때도 항상 창문을 닫고 외출 후에는 겹옷을 털어내고 온몸을 깨끗이 씻어 꽃가루를 없애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한다. 올해 심각한 이 알러지 증상은 프리스쿨 아이들에게도

많이 나타나 교사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어린 나도 일상이 불편하고 답답한데, 아이들은 얼마나 힘들고 괴로울까 하는 생각이 속삭이고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두어 계속 필터링하고 야외활동을 가급적 피하고 있다. 이 봄, 교실 이곳저곳에서 훌쩍거리며 재채기하는 아이들을 향해 "Bless you!" "Please cover your mouth!"를 바쁘게 외치는 Ms. Hannah 보다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봄 동산을 아이들과 즐겁게 산책하는 Ms. Hannah가 되고 싶다. 아쭈~!! songjeongim@g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美 크리스천 중 6%만이 성경 세계관 동의

대표적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크리스천은 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애리조나 기독교 대 문화연구센터가 최근 발표한 '2024 미국 세계관 목록' 보고서에 따르면 전형적인 미국인은 성경이 아닌 개인의 신념이나 행동 등을 기반으로 한 혼합된 세계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성경, 신앙 실천, 가족과 생명의 가치, 하나님, 창조와 역사 등을 바탕으로 한 질의를 통해 성경적 세계관을 측정한다. 해당 보고서는 센터는 지난 1월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다.



인인 동의하는 것은 최대 기독교 국가인 미국의 과제라 할 수 있다. 보고서는 "성경적 세계관을 거부하는 데에는 미국인의 4%, 기독교인의 6%만이 성경적 세계관을 고수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21세기 차르' 푸틴, 5번째 취임식... 임기 2030년까지

블라디미르 푸틴(71) 러시아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취임식을 통해 다섯 번째 임기를 시작한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한국시간 7일 오후 8시) 모스크바 크렘린궁 대궁전 안드레옴스키 홀에서 취임 선서를 할 예정이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3월 15~17일 대통령 선거에서 역대 최고 득표율인 87.28%로 5선에 성공했다. 2000·2004·2012·2018년을 잇는 집권 5기 시대의 임기는 2030년까지 6년간이다. 푸틴 대통령은 보리스 옐친 전 대통령의 퇴진으로 권한대행을 맡은 1999년 12월 31일부터 총리 시절(2008~2012년)을 포함해 20년 넘게 러시아의 실권을 유지하고 있어 '현대판 차르'(황제)로 불린다.



만약 그가 2030년 대선에도 출마해 6선에 성공할 경우 2036년까지 사실상 종신집권에 나설 수도 있다. 취임식은 약 1시간에 걸쳐 진행될 전망이다. 푸틴 대통령은 차이콥스키 행진곡과 정오를 알리는 크렘린궁 종소리를 배경으로 입장한 뒤 헌병에 오른손을 올려 취임 선서를 하고, 새 임기 시작의 포부를 담은 연설을 할 예정이다. 취임식에는 입법·행정·사법부 대표를 비롯해 러시아 영웅 훈장 수훈자, 주요 종교 대표 등이 참석한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7일 정오에 열리는 푸틴 대통령 취임식에 비우호국을 포함한 모든 러시아 주재 외교 공관장을 초대했다고 밝혔다. 국내 행사인 만큼 외국 정상에게는 초대장을 보내지 않았다고 한다.

한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발해 대러 제재를 이어온 미국과 대부분의 유럽연합(EU) 회원국은 푸틴 대통령의 취임식에 불참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6일 전했다. 매슈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러시아 대선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열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미국 대표의 푸틴 대통령 취임식 불참을 예고했다. EU 대변인도 러시아 주재 대사를 푸틴 대통령 취임식에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영국과 독일, 캐나다도 불참 의사를 밝혔다.

"美대학 시위, 전문 선동가들 지원으로 조직됐다"

미국 대학가에서 확산 중인 친 팔레스타인

반전 시위가 좌파 단체와 시위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아 조직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일 보도했다. 일부 학생들이 이들 단체를 찾아가 시위 방식과 조직에 필요한 정보 등에 관해 자문했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시위를 조직한 일부 학생은 수개월 전 '팔레스타인의 정의를 위한 전국 학생회(NSJP)'와 흑인 인권단체였던 블랙팬서당, 캠퍼스 시위 전문가 등과 접촉했다. 이들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역사부터 컬럼비아대학의 과거 시위, 시위대 내부 분열 시 대응 방법까지 논의했다고 한다. 미 전역에 300개가 넘는 NSJP 지부 중 여러 곳이 캠퍼스 시위와 학내 건물 점거를 계획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는 지난 수개월간 학생들에게 대학이 이스라엘과 거래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철회할 때까지 강력히 싸울 것을 촉구했다.

캠퍼스 시위를 조직한 컬럼비아대 대학원생수에다 폴랏은 "우리는 선배들과 대화하며 그들의 말을 메모했고 우리 대학이 과거 시위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분석했다"고 말했다. '팔레스타인의 정의를 위한 교수회' 회원인 사리막디시는 "1980년대 학생 시위대는 최근 캠퍼스 시위를 벌이는 학생들만큼 규율과 조직을 갖추지 못했다"며 "지금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엄격함이 있다. 우리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캠퍼스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체포된 인원 중 대학과 관련 없는 사람들이 포함돼 있어서 전문 선동가 등 외부인이 시위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캠퍼스 시위를 '전문 시위꾼이 선동한 폭동'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정치 폭력을 연구하는 사카고대 정치학자 로버트 파프는 "외부 조직은 시위의 한 요소일 뿐"이라며 "그들은 소셜미디어에서 가짜지구의 참상을 공유하며 계속되는 전쟁에 대한 학생들의 분노를 성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 폭탄' 맞은 브라질 75명 숨져... 103명 실종

'물 폭탄'을 방발케 하는 집중호우로 브라질 남부 지역의 인명 피해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



5일(현지시간) 오글로부와 G1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일주일간 최남단 히우그란지두술주(州) 곳곳에 내린 강한 비로 이날 정오까지 75명이 숨지고 103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3일 정오 기준(101명 사망·실종)보다 증가한 수치다. 이재민은 1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재난 당국은 확인했다. 브라질 기상청은 히우그란지두술주 전역에서 300mm 안팎의 강우량이 기록됐다

고 밝혔다. 벤투군사우베스의 경우 일주일 누적 강우량이 543mm를 넘었다. 히우그란지두술 중심 도시인 포르투알레그리에서는 사흘 만에 258.6mm의 비가 내렸다. 이는 4월(114.4mm)과 5월(112.8mm) 평년 강우량을 합친 것보다 많다고 브라질 기상청은 강조했다.

포르투알레그리 지역 상공에서 촬영해 현지 매체에 보도된 사진과 동영상은 보면 도로엔 물이 가득 들어찼고, 시청사를 비롯한 저지대 건물은 대부분 1층의 절반 이상 물에 잠겨 마치 수중 도시처럼 변했다. 교도소 역시 피해를 봤다. 1000여명의 수감자가 인근 도시 교정 시설로 긴급 이감됐다고 G1은 보도했다. 이 지역 국제공항은 폐쇄됐고, 시내버스 95%의 운행도 중단됐다.

주 정부는 전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식수 및 비상식량 공급 등 재난 대응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브라질 연방장부도 군 장병을 투입해 이재민을 지원하고 배수 작업 등을 돕도록 했다. 일부 기상학자는 아마존에서 나온 거대한 수증기 통로, 강한 바람, 고온다습한 고기압 공기층 등 등의 영향으로 이 지역에 수해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이스라엘, 라파에 보복 공습 "두 가족 16명 사망"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로켓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를 공습, 아기를 포함해 16명이 사망했다고 AFP 통신이 6일 보도했다.



하마스의 한 관리자는 AFP에 "라파의 사망자 수가 16명으로 파악됐다. 한 가족에서 7명, 다른 가족에서 9명이 숨졌다"고 말했다. 사망자 가운데 아기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간 더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의료계 소식통을 인용해 "가자지구 내 다른 두 곳이 한 차례씩 공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의 이번 공습은 지난 5일 가자지구 북부 장벽 인근의 자국 측 검문소에 대한 하마스의 공격으로 군인 3명이 사망한 데 따른 보복으로 보인다. 하마스의 알카삼여단은 "검문소에 로켓을 발사했다"며 공격의 배후를 자처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미국, 이집트, 카타르 등 국제사회의 중재로 휴전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하마스는 지난달 26일 이스라엘에서 새롭게 제시된 휴전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이집트 카이로 협상장에 돌아갔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협상장에 나오지 않았다. 하마스 측 대표단은 이날 정치국 사무소를 둔 카타르로 돌아간 뒤 7일 카이로에 돌아와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스라엘군은 라파 지상전 계획을 고수하고 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5일 가자지구 중부를 찾아 "하마스가 우리와 협상 타결을 원하지 않는다는 우려스러운 신호를 감지했다"며 "이는 라파와 가자지구 전역에서 군사 행동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개혁주의 입장에서 현대신학 비판 (8)



이길호 목사
(뉴욕 성실장로교회 원로)

III. 폴 틸리히의 존재의 신학 (Theology of Being) (3)

5) 폴 틸리히의 신학에 대한 개혁 신학적 비판

(1) 틸리히 신학의 가장 큰 문제는 그의 신학의 체계를 성경이 아니라, 실존주의 철학에 기초하고 있다. 케네스 해밀턴 (Kenneth Hamilton) 는 이렇게 평가한다. 틸리히는 "신학을 철학으로 대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대체시켰다" 했다 (Philip E. Hughes, editor, Creative Minds in Contemporary Theology, 479).

(2) 틸리히의 신론은 성경의 신론과는 관계가 없다. 콜린 브라운 (Colin Brown)은 "틸리히의 하나님은 성경의 삼위 일체의 하나님이라 하기 어렵다 (hardly Trinitarian). 그의 신론은 전통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아니다. 그의 하나님은 이성적일 수는 있지만 (rational power), 의사를 전달하며 그리고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다. (not a person who communicates and with whom man can enter into communion) (Colin Brown, Philosophy & the Christian Faith, P. 199). 틸리히의 신관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구분을 사라지게 만든다.

(3) 틸리히의 기독교론은 예수를 하나님의 상징으로 축소시킨다 (Harvie M. Conn, op. cit., 92).

예수의 의미의 중요성은 단순히 "그가 죽기까지 신성의 비밀에 대해 투명하게 계시했다는 것이며, 이는 그의 투명하심의 마지막 현시(顯示)이다 (The significant thing is simply that "He remained transparent to the divine mystery until His death, which was the final manifestation of His transparency) (Paul Tillich, Systematic Theology I, 149 ff.) 결국 그의 기독교론은 "힌두교인이나 불교도들에게도 받아들여질 만큼 타협되어진 기독교론이다.

이것은 성경적인 기독교론은 아니다.

(4) 틸리히의 구원관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관과는 상관이없다.

틸리히는 "그리스도의 죽음 및 부활은 '상징들을' (symbols) 묵상함 (through meditation)으로 새로운 자아로 깨우쳐준다 (an awakening in man to a new self)는 의미이다"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없는 자들도 틸리히의 방법으로 부처나 공자를 묵상함으로 동일한 구원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 (Harvie M. Conn, op. cit., 92).

5. 상관관계 (correlation)의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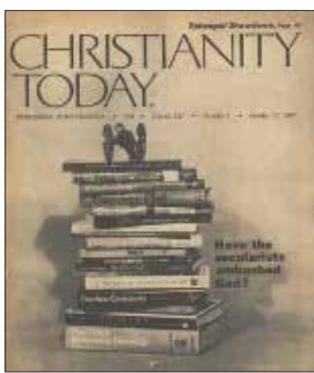
틸리히의 상관관계의 원칙은 철학이 인간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의 이성은 상황을 참되게 판단할 수 없다. 죄는 인간의 이성을 타락시켜 비진리를 진리로 왜곡시킨다. 철학적인 이성이 인간의 실존의 의미를 진실되게 드러낼 수 없다. 반틸 교수는 그리스도 없는 이성은 더럽고 오염된 유리창이기 때문에 틸리히가 주장하는 것처럼 빛을 들여 보내지 아니한다 (Van Til, The Reformed Pastor and Modern Thought, pp. 162-167).

(결론)

알타이저 (Thomas J. J. Altizer) 는 폴 틸리히의 신학에 큰 영향을 받아 그의 신학을 사신신학 (Death of God Theology)으로 발전시켰다. 폴 틸리히가 시카고대학에서 교수로 있을 때에, 알타이저가 강의한 경우가 있었다. 한 번은 알타이저의 강의를 들던 틸리히는 그의 제자인 알타이저를 조용히 불러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고 한다. "당신은 어떻게 그런 무신론적 결론에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이에 대해 알타이저는 스승 틸리히에게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바로 당신이 가르친 신학 때문이었습니다."

다음의 그림은 폴 틸리히의 신학을

잘 요약한다. 이 그림은 1967년 10월 13일 발행된 (October 13 1967, 1967/ VOLUME 12, NUMBER 1) <Christianity Today> 표지 그림이다.



다음과 많은 책들이 있으며 그 밑, 기초에는 폴 틸리히의 조직신학이 있다. 바하니안(Gabriel Vahanian)의 No other God (다른 하나님이 아니다); 하밀턴(William Hamilton)의 The New Essence of Christianity (기독교의 새로운 본질); 알타이저의 Towards a New Christianity (새로운 기독교를 향하여)와 The Gospel of Christian Atheism (기독교적 무신론의 복음)과 Radical Theology and the Death of God (급진신학과 하나님의 죽음), 그리고 반 뷰렌 (Paul M. van Buren) 의 The Secular Meaning of the Gospel (복음의 세속적 의미)가 있다.

폴 틸리히의 조직신학과 그의 신학 사상은 자유주의, 세속주의, 급진주의, 그리고 나아가서 사신 신학까지 영향을 끼쳤다. 이 모든 자유주의 신학의 기초 가운데 하나는 폴 틸리히의 신학 사상이다.

IV. 희망의 신학 (Theology of Hope)

독일 튀빙겐 대학의 위르겐 몰트

만 (Jürgen Moltmann) 교수가, [희망의 신학, The Theology of Hope, 1967], 그리고 [종교와 혁명과 미래, Religion, Revolution and the Future 1969] 가 출판함으로 희망의 신학이 세계적으로 빠르게 퍼지게 되었다.

희망의 신학의 전제는 "하나님이 시간의 과정에 굴복한다" (God is subject to the process of time) 는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미래로 나아가는 시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대단히 비성경적인 사상이다. 성경의 하나님은 무한, 불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간으로부터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시간을 포함한 만물의 주가 (Lord) 되신다.

몰트만에 의하면 하나님은 "미래를 그의 본질로 가지는 하나님이시다" (future as his essential nature) (Jürgen Moltmann, The Theology of Hope, Harper & Row, 1967, pp. 29-32). 몰트만은 성경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who He is)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미래에 어떤 분이 되실 것인지 (who He will be in the future)를 계시하신다고 주장한다. 몰트만이 주장하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초월하여 주권적으로 역사를 주장하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이 아니다.

몰트만이 말하는 종말론은 전통적인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미래에 대해 열려진 것이며, 미래의 자유이다 (not the traditional anticipation of the second coming of Christ, but openness to ward the future, the freedom of the future). 미래는 사람과 하나님에게 모두 알려지지 아니하다고 주장한다.

전통적인 기독교 교리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며, 그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미래의 영광과 의미를 가득히 채워주는 역사적 사건이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미래의 영광 및 의미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리처드 개핀의 책을 참고하라. Richard B. Gaffin, jr., Resurrection and Redemption, A study in Pauline Soteriology, P&R Publishing; 2nd ed. Edition, 2000).

그러나 몰트만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의 역사성은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한다. 그는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로부터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 안되며, 무한한 미래로부터 갈보리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from unlimited future back to Calvary) 주장한다. 전통적인 교리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마지막 성도들의 부활의 역사적인 근거가 된다. 그러나 몰트만은 마지막 성도의 부활이 예수의 부활의 근거가 된다고 주장한다. 계속해서 그는 열

려진 무덤에서 앞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을 마지막 부활(미래)에 투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전통적인 부활의 교리와는 큰 거리가 있다.

그에 의하면, 사람은 자신의 미래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면 안되며, 능동적으로 미래에 참여해야 한다. 교회의 설교는 사람들이 현재에서 (here and now) 미래를 구체적으로 붙잡아 행동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회의 목적이 미래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과거의 사실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 자체는 중요하지 아니하다. 중요한 것은 현재에 각자가 미래를 붙잡는 것이다. 사람은 자기의 메시아적 가능성 (his messianic possibilities) 을 알아야 한다 (Jürgen Moltmann, Religion, Revolution and the Future, Charles Scribner's Sons, 1969, p.52).

몰트만의 종말론은 성경적이지 않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한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고 (행 2:17; 히 1:2; 요일 2:18),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이 종말의 절정 (the consummation of the last days)을 이루게 된다. 그러나 몰트만의 종말론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인간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인간 중심의 종말론 (man-centered system)이다.

그러므로 많은 비판자들이 몰트만의 종말론을 종말론 (eschatology)라기 보다는 "미래학 (futurology)"으로 칭해야 한다고 한다. 몰트만의 미래의 최종 목표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히 나타나심 아니라 (not the full manifestation of Christ's glory), 이 땅에 세워지는 유토피아이다 (but the building of Utopia on earth).

몰트만의 하나님 나라는 정치와 혁명에 의하여 도래한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복음의 말씀을 선포함에 있다 (행 28:30-31). 몰트만의 하나님 나라는 지상에 이루어지는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현실적인 실체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거듭난 자들이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이며 (요 3:35), 하나님 나라는 평화의 나라이며 혁명이 아니다 (롬 14:17).

몰트만에 의하면 미래는 사람에게만 미지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미지의 세계가 된다. 몰트만에 의하면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God, no longer exists from eternity to eternity).

KHL0206@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p>갈보리장로교회</p> <p>담임목사: 조용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p> <p>Tel: (702) 579-7576, Fax: (702) 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p>	<p>다민족교회</p> <p>담임목사: 홍귀표</p> <p>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그림교제기도회: 오후 1:00 주일학교: 오전 11:30 수요성경공부: 기도회: 오후 8:00 다민족찬양: 매주(목)오후 4:00-7:00</p> <p>Tel: (773) 802-1112, estocross@yahoo.com 6250 W. Touhy Ave, Chicago, IL 60646</p>	<p>몽고메리교회</p> <p>담임목사: 최해근</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다민족찬양: 오후 8:00 태양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610) 222-0691, 267-471-7777, Fax: (610) 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p>	<p>벤넬교회</p> <p>담임목사: 백성중</p> <p>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 (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한): 오후 1:45 E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410) 461-1235, www.bethelchurch.org 3185 St. Johns Lane, Elkton City, MD 21042</p>	<p>보스톤장로교회</p> <p>담임목사: 장성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5:30 주요강연회: 오후 7:30 문진, 영, 종교동부 (주일) 오전 11:00, (금) 오후 8:00</p> <p>Tel: (508) 435-4572,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ixton, MA 01748</p>	<p>센터빌한인장로교회(PCA)</p> <p>담임목사: 차용호</p> <p>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00 초, 중, 고, 대학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오후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p> <p>Tel: (703) 981-9235, www.koreanpcc.org 25454 Gum Spring Road, Chantilly, VA 20152</p>
<p>알칸사 제자교회</p> <p>담임목사: 전남수</p> <p>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전 3: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철야: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p> <p>Tel: (501) 920-9049, www.jea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p>	<p>앵커리지델린문교회</p> <p>담임목사: 함성주</p> <p>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45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p> <p>Tel: (907) 344-6446, Fax: (907) 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p>	<p>영생장로교회</p> <p>담임목사: 정승환</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예배: 오후 7:45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215) 842-0288, Fax: (215) 8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p>	<p>킬린은누리교회</p> <p>담임목사: 김성환</p> <p>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미결예배: 오후 8:00 토요청년모임: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p> <p>Tel: (254) 635-1842(H), (254) 5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p>	<p>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p> <p>담임목사: 한세영</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p> <p>Tel: (703) 9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p>	<p>타코마 한인장로교회</p> <p>담임목사: 박정호</p> <p>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주일 2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3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4부예배: 오후 1시 수요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p> <p>Tel: (253) 636-6675, www.tacomakcc.org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신앙칼럼

그리스도의 위대한 초대(Christ's Great Invitation)

초대(Invitation)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불구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불티가 하늘로 올라감같이 스트레스를 위해서 태어났으며(욥 5:7) 허무와 무의미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태어나며 죽음과 절망에 부딪혀 산산조각으로 깨어질 수밖에 없는 무거운 짐의 스트레스를 지고 태어났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문제가 다가올 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자신을 파괴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마 11:28) 인생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인생들에게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길을 보여주며 우리를 다 초대하고 계십니다.



사형수가 됐습니다. 바로 지금의 초대의 결정이 운명을 가르는 열쇠인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Come to Me) 예수님께서 형형색색의 짐을 진 사람들에게 정부를 찾아가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재물을 찾아가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숙명적으로 절망하여 인생을 울면서 한평생을 보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무거운 짐을 해결해 줄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약속에 신실하십니다.(민 23:19)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습니다.(요 1:3) 예수님께서 그 우주를 지으시고 육적인 것과 영적인 문제도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지으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일의 주인이신 것입니다.(렘 33:2) 인간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면 해결해 주십니다.(렘 5:7) 선교사 한 분이 차를 타고 시골길을 가는데 한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교사는 차를 멈추고 "할머니 이 차에 타십시오."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지만, 선교사의 간청에,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시골 할머니는 차에 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머리에 짐을 내려놓지 않고 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선교사가 "할머니! 짐을 내려놓고 편히 가세요." 그러자 할머니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차를 공짜로 얻어 탄 것도 이렇게 미안한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겠소!" 하더라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지금 시골 할머니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은 것만도 감사한데 무슨 짐까지 말기느냐고요? 주님은 이 시간도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 "너의 멍에를 내게 맡겨다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저주마 너는 단지 나를 믿고 따라 오너라. 내 말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하신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입니다.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신 이도 여호와신 것입니다.(렘 33:2)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Take My Yoke Upon You and Learn from Me)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에게 일을 돌려드리고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휴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우고 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마 11:30) 하고 하십니다. 멍에란 짐을 가볍고 쉽게 걸머지게 하려는 수단인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의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마 11:29) 소에게 멍에를 메우지 아니하고 밭을 그냥 갈게 하면 소가 죽어 다 벗겨집니다. 멍에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짐을 쉽고 가볍게 질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란 바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의

자세가 예수님의 멍에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I will Give You Rest) 최고의 토크쇼 진행자인 오프라 윈프리는 사생아(私生兒)였습니다. 부모 없이 할머니에게 맡겨져 학대 속에 자랐습니다. 9살 때 성폭행을 당했고 14살 때 사생아를 낳았습니다. 그녀는 마약도 했습니다. 그녀는 망가질 때로 망가진 인생입니다. 그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목상했습니다. 매일 기도했습니다. 인생이 변했습니다. 사람들이 종종 이렇게 조롱합니다. "당신 사생아지? 마약도 했으며? 사생아도 낳았어?" 그러면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렇소! 그러나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은 위대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프라 윈프리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겨버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의 망가진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앞에서 끄는 대로 그녀는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녀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라면이 무슨 라면인지 아십니까? "예수와 함께라면"입니다. 이 라면 때문에 오늘의 오프라 윈프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와 함께라면"을 즐기기를 바랍니다. 승리하는 인생, 축복받은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초청에 응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쉬은 주님의 멍에를 메고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chayongho@hotmail.com

사·모·칼럼



허양희 사모 (텍사스 오스틴 주님의교회)

I- Message

5월은 가정의 달이다.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하여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해 어린이날, 아버지날, 부부의 날 등이 5월에 집중되어 있다. 필자가 어릴 때는 어린이날이 그렇게 좋더니 이제는 아버지날, 미국에서는 어머니날이 좋아진다. 부모님과 아이들을 통해 느끼는 사랑이 포근해서일 게다. 누구나 사랑을 그리워한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빼그덕거리기 때도 유심히 살펴보면 사랑이 고파서 나를 좀 알아달라는 메시지가 그 안에 있음을 발견하곤 한다.

부부 관계에서 여성들이 사랑을 느낄 때는 어떤 큰 선물을 안겨주는 것보다는 마음을 알아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며 여성의 감정을 배려하는 데 있다. 그러면 여성들은 마음의 안정감을 누리게 된다. 그런데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배우자는 이미 내 것이라는 생각이 안일한 결혼 생활로 이어지고 이런 태도는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게 하는 것 같다.

다른 이들이 바라볼 때 흠잡을 데 하나 없는 행복한 부부가 있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들의 삶은 자주 불협화음으로 고성이 오갈 때가 많았다. 자신의 마음을 잘 알아주지 못하는 남편이 섭섭하고 또 자신의 마음을 왜곡하여 해석하는 아내가 서운하여 자주 언쟁이 있었다. 사랑을 꼭 말로 표현해야 하나라는 태도를 가진 남편은 아내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서툴렀고 이런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의 마음은 서운함이 겹겹이 쌓여 이들의 관계는 금이 가고 있었다. 아마도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성장한 남자의 경우 대개가 말의 표현이 서툴러서 결혼 생활의 이력이 쌓일수록 가정은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하면 말의 표현을 성숙하게 할 수 있을까? 서로 간의 불편한 마음을 마음속에만 넣고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 감정의 기복을 느끼는 대신 I- Message(나 전달법)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보면 어떨까? 이 방법은 미국의 임상 심리학자이자 심리 치료사인 토마스 고든 박사가 개발한 의사소통 기술로 문제가 되는 상대방의 행동이나 태도로 영향을 받은 '내가 느낀 감정'을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것으로 대화의 포인트가 너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기에 '나 전달법'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사랑 표현이 서툰 남편에게 "여보 난 당신이 사랑한다고 말로 표현해 줄 때 참 행복하고 기쁘더라", "당신은 누구를 닮아서 그토록 목석이니? 그것도 대물림이야?" 후자는 상대를 비난하고 질타하는 메시지가 있어서 상대에게 공격당한다는 생각을 주어 자기방어를 하게 한다. 하지만 전자는 오류이 화자의 감정만을 솔직하게 전달하기에 상대의 기분을 자극하지 않는다. 이렇듯 나 전달법은 상대방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뒤 그 행동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말하고 덧붙여 상황의 개선을 위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가정의 달, 5월에는 부부간에 공감하고 존중하는 I- Message로 부부간의 대화 장벽을 허물고 아이들과 대화의 물꼬를 트는 더 건강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yanghur@gmail.com

Midwest University advertisement featuring a banner with the text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and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Below the banner, there are sections for '신학, 목회학 -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 (Theology, Ministry - Bachelor's, Master's, Doctoral Degree Programs),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Degree Programs), and '학점,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Credits, Degree Acquisition Methods). The ad lists various degree programs like '국제항공대학(원)',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리더십대학원', '상담심리대학원', '신학대학(원)', and '음악, 문화예술대학원'. It also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입학문의 : 전화 (636) 327 - 4645, 이메일 usa@midwest.edu' and '자세한 사항은 web site 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혹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he footer contains the university's name and address: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www.midwest.edu Tel : (636) 327 - 4645 / E-mail : usa@midwest.edu'.

목회서신



김창섭 목사 (세계선교교회)

휴게소에 머물 것인가?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그가 받은 부르심은 고향을 떠나라는 부르심이다. 당시에 고향을 떠나는 것은 이 시대에 고향을 떠나는 것과는 차원이 다

른 도전이요 모험이었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어딘가로 이민을 가야 한다고 하면 그곳은 어디인지, 누가 사는지, 길은 어떤지, 음식은 어떤지 자세히 조사한다. 가능하면 미리 답사

도 다녀온다. 그래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가나안에 미리 답사를 다녀온 것도 아니요, 기껏해야 가나안에서 온 사람들의 이

야기 몇 마디 만을 주위 들을 수 있었을 뿐이었으리라. 그럼에도 가 보지 않은 길, 어떤 일이 앞에 나타날지 알 수 없는 길을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걸어갔다. 그러니 믿음의 조상이라 불릴 수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아내, 조카와 함께 고향 갈대아인의 땅 우르를 떠나 가나안을 향해 가던 중, 중간 기착지인 하란에 도착했다. 아마 하란이 살기 좋은 도시였던 모양인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 정착하기로 결정한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가야 했다. 약속의 땅이기 때문이다. 아버지 데라에게 하란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좋은 곳, 기회의 땅이었을지 몰라도 아브라함에게 하란은 그저 중간 기착지였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결별해 가나안으로 향해 간다.

미국의 프리웨이 중간에 있는 휴게소(resting area)를 처음 갔을 때, 참 많이 실망했던 기억이 난다. '역시 휴게소는 내 자리가 아니다. 목적지인 저 천국에 우리의 자리가 예비되어 있다. 우리들은 이 곳 휴게소에서 더 오래 머물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휴게소에 오래 머물러 봤자 목적지에 도착하는 시간만 늦어질 뿐이다. 휴게소에 머물 것인가? 휴게소의 삶을 즐길 것인가? 아니면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

목적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오늘을 살아보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빌 3:20) wmcakim@gmail.com

하지만 휴게소를 아무리 아름답게 꾸민들, 휴게소는 잠깐 머무는 곳일 뿐이다. 휴게소는 내 자리가 아니다. 목적지인 저 천국에 우리의 자리가 예비되어 있다. 우리들은 이 곳 휴게소에서 더 오래 머물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휴게소에 오래 머물러 봤자 목적지에 도착하는 시간만 늦어질 뿐이다.

휴게소에 머물 것인가? 휴게소의 삶을 즐길 것인가? 아니면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 목적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오늘을 살아보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빌 3:20) wmcakim@gmail.com

2024국가기도의날 기도회 성료

“기도할 때 미국이 다시 하나님 나라로 쓰임 받게 될 것”



2024국가기도의날 기도회를 마치고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미주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송정명 목사, 진유철 목사)가 주관하고 청교도신앙회복운동, 자마, 순부브먼트 월드쉐어 USA, 미주한인군교회, CMF가 정사역원이 공동주최한 2024 국가기도의날 남가주한인연합 기도회가 '말씀을 받들어 올려 세상을 밝히소서(삼하 22:29-31)'라는 주제로 5월2일(목) 오후 7시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에서 열렸다.

진유철牧사는 “지금의 전쟁과 난리인 시대다. 무엇보다 거짓선지자들도 많이 일어나 영적 혼돈의 시대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라며 “기도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며 놀라운 기도응답을 약속하셨다.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 된 이 시간이 은혜와 복된 자리다. 기도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나길 축원한다”고 말했다.

나성순복음교회 연합찬양팀의 찬양인도와 국유권 목사(중

현선교회) 사회로 열린 1부 예배는 민경엽 목사(나침반교회) 대표기도, 김수희 권사(새생명비전교회) 성경봉독으로 이어졌으며 신승훈 목사(주님의영광교회)가 '나라가 임하시오며(마 6:9-10)'라는 제목으로 말씀선포를 했다. 신승훈 목사는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목사는 “본문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라며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고 힘써야 하며 하나님을 전하려고 힘써야 하고 새로 믿은 자들을 양육시켜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에서 지난 10년간 4천만명이 교회를 떠났다. 반면 동성애자는 지난 10년간 두 배 이상 늘었으며 크리스천들의 50%가 동성애를 지지한다”라 말한 뒤 “하나님께서 죄

라고 하는 것은 죄이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낙태를 지지한다. 연방법으로 낙태를 금지시켰는데 낙태를 지지하는 주가 반대하는 주보다 많다. 매춘도 권리라며 매춘단속이 금지되었고 15세 이상 매춘이 합법이 되었다”고 말했다. 신 목사는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 작금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미국이 다시 믿음의 나라가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로 쓰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부 기도회는 이종용 목사(코너스톤교회), 김은목 목사(평화교회), 이수호 목사(올림픽장로교회), 크리스틴 정 자매(사우스랜드교회), 양경선 목사(샘물교회), 우수연 사모(ABC교육구 교육위원), 강순영 목사(JAMA), 최영봉 목사(남가주교회 협회 회장), 김재권 장로(미주성시화 이사장), 고태형 목사(선한목자교회), 손창민 목사(에브리데이교회), 이상명 총장(미주장신대), 오윤테 목사(순부브먼트), 김철민 장로(CMF가정선교회), 안현숙 목사(CBS중보기도팀장), 김기동 목사(세리토스종만교회), 최금옥 권사(남가주동신교회), 김시은 목사(용기장교회), 박복길 장로(나성순복음교회), 그레이스 유 집사(LA시 10지구 시의원 후보) 등이 참여해 기도회를 인도했으며, 모든 순서는 송정명 목사(미주성시화 공동대표)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기독실업인 KCBMCUSA 샌프란시스코대회 개최



기독실업인 KCBMCUSA 샌프란시스코대회 관계자들

신앙을 기반으로 기업을 경영하며 일터를 사역지로 섬기고자 설립된 CBMC의 한인연합체인 미주서부총연합회(KCBMCUSA, 총회장 강승태, 직전회장 황선철)의 주최와 북가주연합회(SFCBMC, 회장 계용식)주관으로 열린 이번 제2차 대회가 한국중앙회 최범철 회장과 10여명의 한국본부 회원들과 남가주연합회(회장 이봉우) 4개 지회 관계자 10여명, 유럽 및 미 각주 등 약 15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인근 엠버시 호텔에서 지난 4월 25일(목) 오후 5시에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개회예배를 황선철 장로(직전회장)의 대표기도, 박성호 목사(임마누엘 장로교회 시무)의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요 17:11-19)라는 제목의 설교로 진행됐다.

개회식은 계용식 공동준비위원장의 개회선언 후, 미주서부 KCBMC 총연합회 강승태 회장의 대회사와 있었다. 강회장은 “이 대회를 통하여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일터를 하나님 나라로 되게 하자는 CBMC의 비전과 사명을, 오로지 행함으로 믿음으로 이루어 가기를 원한다”며 “일터사역자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CBMC 선배님들의 믿음의 유산을 차세대에게 전함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의 리더십 특강은 강세호 한국CBMC수석부회장(전 IBM부사장, 현 Lifemax Korea CEO)의 '예수님의 리더십 강의'와 한국CBMC교육위원장이며 송실대학교 중소기업대학원 교수인 이선영 교육위원장의 '총체적 선교, CBMC가 답이다'가 강의됐다.

일터사역 간증에는 여호수아 김(태진)목사의 'Refresh Other!(전 11:25)', 스탠포드대

학교 교육대학원 CTO이며 부학장, Seeds of Empowerment 대표 폴 김 교수, 전 버마인 시장이며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 임명 조달청 환태평양지역과 북서 및 북극지역을 관할하는 지역청장인 강석희 조달청장의 '가능성의 힘(요 12:24)'이란 주제의 간증과 앤젤라 최(Air Force Security Forces Military Police)의 간증이 이어졌다.

이번 대회에서 남가주연합회와 북가주연합회는 각 임원단 소개와 사역보고가 있었으며 한국 중앙회 최범철 회장이 미주서부 총연합회에 그동안 지체됐던 CBMC 공식 깃발을 전달하며 현 연합회 강승태 총회장과 직전총회장인 황선철 회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한편 CBMC와 오랜 기간 사역하고 있는 포크송가수 윤희주 장로의 찬양과 간증집회도 있었다. 주님의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국제적 사명공동체 CBMC는 실업인과 전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증거하고 주님의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국제적 사명 공동체로 전세계 97개국에 조직되어 국내 290여개 지회 해외 160여개 지회를 두고 있고 8천여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리 박준호 기자>



사진은 지난해 열렸던 제27회 에피포도예술과문학상 시상식때 기념촬영하는 모습

제28회 에피포도예술과문학상 공모전

“예술을 통해 복음 선교와 크리스천 예술 확장”

에피포도예술인협회(대표 백승철 목사)가 제정하는 제28회 에피포도예술과문학상 공모전이 진행 중이다.

공모 작품은 문학전부문 시(5편 이상) 수필(3편), 단편소설(1편), 평론(1편), 아동문학(1편), 희곡(1편)으로 문학상(등단 또는 출판경력 작가), 문학신인상으로 구분해서 응모할 수 있고, 사진(10작품 이상), 미술상(3작품 이상), 음악상(작곡, 작사), 번역상(시 분야로 한국시를 영어로 또는 영시를 한국어로 번역, 5편 이상), Youth(초등학교-고등학교) 문학(전 분야, 영어, 한국어)신인상, 그리고 출판저작상을 공모한다. 마감은 5월 31일, 이메일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수상자 발표는 6월 초순, 수상작품은 책으로

역어지며 출판기념회와 시상식은 11월에 있을 예정이다.

에피포도예술과문학상은 1995년 10월 22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된 기독교총합예술단체이다.

에피포도예술과문학상은 예술 전분야를 통해 복음 선교와 크리스천 예술 확장 방법으로 열린 예술, 넓은 예술을 지향하며 에피포도를 세계적인 크리스천 예술과문학상으로 성장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에피포도는 헬라어로 “사랑하다. 사모하다. 그리워하다”의 뜻이다(빌 1:8).

공모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이메일 usaep@hanmail.net 또는 (714)907-7430 로 하면 된다. 자세한 것은 www.epipodo.com 으로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칼빈의 편지에서 찾아내는 그의 신학 발전

(2면에서 계속)

다시 말하지만, 제네바 회중 및 가까운 친구들과 떨어져 있으면서도 칼빈은 그들과의 특별한 교제를 원했다. 비록 거기에 펜과 종이라는 매개체가 필요했지만, 그럼에도 단지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특별한 애정”이 요구하는 만큼 지속적인 교제를 원했다.

칼빈은 이런 교제를 통해 드러내는 믿음과 관련하여 교회에 관한 어떤 기대를 표명했다.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 구성원들에게 선물로 주어진 사랑의 교감, 비록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교회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었다. 칼빈은 이렇게 썼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비록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분명하게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의 증거로서 멀리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서로 연합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라고 촉구했다.

제네바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칼빈은 편지를 나누는 사람들과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분명한 신학 원칙을 견지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도하셔서 그의 신실한 백성을 이끌어가는 연합은 실로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성도라면 누구나 모든 가능한 선한 형태로 그 연합을 추구해야 합니다.”

칼빈과 동료 개혁가 마르틴 부셔(Martin Bucer)는 편지 교환을 통해서 교회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친교에 대한 신학적 이해가 종종 개인적인 신앙으로 이해되는 것보다 훨씬 더 사회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즉, 공동체는 다 함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 비록 (성찬식 같은) 지역별로 이뤄지는 관행이라고 해도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여전히 전체 공동체의 일부로서 자리를 잡는다. 비록 칼빈은 작은 프랑스 난

민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지만, 칼빈과 부셔가 서로에게 편지를 쓰고 상대방의 통찰력을 즐기는(앞서 언급한 파렐과 제네바 회중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기초는 이러한 공동체 성장에 기초를 둔다. 이들의 편지는 각자가 간직한 개인 경건을 진심으로 존중하면서 동시에 지역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존재하는 성도들 사이의 친교에 대한 개념을 확장한다.

편지 쓰기를 통한 성화

훈련으로서의 편지 쓰기는 칼빈이 자기 말과 소명을 성찰하면서 제네바 사역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그리고 스트라스부르와 그 너머로까지 우정을 꽃피우는 데에까지 도움을 주었다.

스트라스부르에 잠시 머무는 사이에 꾸준히 편지를 썼기에 칼빈은 제네바로의 귀환이 순조로울 수 있었다. 더불어서 유럽 전역에 퍼진 개혁과 사역과의 파트너십이 열매를 맺는 것도 가능했다. 칼빈은 부셔에게 그

와의 편지 교환을 통해서 얻은 혜택과 명예에 대해서 자신이 결코 “무신경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스트라스부르 편지는 칼빈이 개인적 사역의 혼란 속에서 견디게 한 힘이었고 또한 그가 풍부한 교회론을 발전시켜 나가는 수단이었다. 이런 유익은 칼빈 개인뿐 아니라 미래의 제네바 공동체에도 유익이 되었다. 비록 칼빈이 성경의 정경을 위해서 글을 쓴 건 아니지만, 그의 글은 편지라는 틀에서 볼 때 사도 바울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 칼빈의 편지를 연구하고 거기에 담긴 그의 사상을 신학적인 이점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은 결코 편지를 “흠치는” 게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칼빈이 편지 교환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인식했던 믿음으로 연합된 공동체 유대를 계속 이어가는 당사자이다. 비록 칼빈과 몇 백 년이라는 시간으로 떨어져 있어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by Christopher Osterbrock, TGC

동부교계 기사관

뉴욕장로교회, 아버지주일 및 효도잔치

뉴욕장로교회(담임 김학진 목사)는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5월 12일(주일) 본교회 친교실에서 효도잔치를 개최한다. ▲ 문의: 718-706-0100

제16회 미동부지역 5개주 한인목사회 연합체육대회

뉴욕지구한인목사회(회장 정관호 목사)는 5월 13일(월) 오전 8시에 제16회 미동부지역 5개주 (뉴욕, 뉴저지, 필라델피아, 매릴랜드, 버지니아) 한인목사회 연합체육대회를 Frank Golden Park에서 개최한다. 종목은 배구, 축구, 족구 등이다. ▲ 문의: 진행위원장 이창남 목사 646-772-5947

뉴욕센트럴교회, 2024 봄철 성회

뉴욕센트럴교회(담임 김재열 목사)는 5월 17일(금)부터 19일(주일)까지 백운영 목사를 초청하여 '같은 신앙을 후대에 전수하라'는 주제로 2024 봄철 성회를 개최한다. ▲ 문의: 516-387-9940

뉴욕영안교회, 설립 8주년 임직감사예배

뉴욕영안교회(담임 김경열 목사)는 5월 19일(주일) 오후 4시 본교회에서 설립 8주년 임직감사예배를 드린다. ▲ 문의: 917-963-9356

뉴욕예술가곡연구회, 제 42회 탈북난민구출 음악회

뉴욕예술가곡연구회는 5월 19일(주일) 오후 6시 하크네시 야교회(시무 전광성 목사)에서 제 42회 탈북난민구출 음악회를 갖는다. 뉴욕 정상 성악가들이 출연하여 은혜로운 성가와 주옥같은 가곡들을 독창과 중창의 아름다운 화음으로 선사한다. 음악회 티켓은 20불이며 반디서점(718-353-4411), 하나뮤직(201-943-7782), NY Art Sons(212-567-6919)에서 구입할 수 있다. ▲ 문의 718-229-9191

제 7회 PCB Bank 장학생 모집

PCB BANK은 제 7회 장학생을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2024년 고등학교 졸업 예정이며 2년제 혹은 4년제 대학 입학 예정자로 누적학점 4.0 만점 기준으로 Unweighted GPA 3.0 이상이다. 접수방법은 PCB BANK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제출 마감일은 5월 22일 서부시간 오후 5시이다. ▲ 문의: 213-210-2000

뉴욕한인봉사센터(KCS), 가족사진 촬영

뉴욕한인봉사센터(KCS)는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무료 가족사진 촬영 행사를 진행한다. 5월 한달간 9일부터 매주 목요일에 사진 전문인을 초청하여 촬영하며 사진(가로24"X세로36") 캔버스 사진 프레임을 제공한다. 이메일 chloe@kcsny.org, davidyoon@kcsny.org로 신청하면 된다. ▲ 문의 718-939-6137 (내선 315, 325)

청소년센터(AYC), 여름학교 개강

청소년센터(AYC)는 유치원부터 9학년(K-9th Grade)까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Summer School (여름학교)를 7월 8일(월)부터 8월 16일(금) 총 6주간 개최한다. 소수 정예(25명)로 운영되며, 선생님들과 보조교사가 함께 한다. 사전등록 기간은 5월 31일(토)이며 등록방법은 연락 후 Google Form 링크를 보내준다. ▲ 문의: 212-464-7812, 917-992-5200, admin@aycny.org



가정의 달 연합예배 후 모든 참석자들이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퀸즈장로교회,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 기념 연합예배 다음세대로 이어지는 주님을 향한 교회의 꿈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는 5월 5일(주일) 오후 4시에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 기념 연합 예배를 퀸즈장로교회 본당에서 드렸다. 1부 예배는 김형섭 집사의 사회로 시작하여 부모님과 어린이들이 울동과 함께 인도하는 신나는 찬양의 시간으로 이어졌다. 대표기도 최치훈 집사, 최주환 학생, 성경봉독 송명남 집사, 송하준 학생, 연합 찬양대 찬양, 말씀 차평화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차평화 목사는 "믿음으로 큰 일을 이루는 가정(히브리서 11:23-26)"을 주제로 한 설교에서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모세를 키우면서 모세의 일들을 준비하였다. 그들의 이름은 모세 만큼 크지도 않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광경을 보지도 못했지만 오직 믿음으로 자녀를 돌보았듯이 우리 부모님들도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믿음 안에서 자녀들을 키워 나가길 바란다. 이 세상 그 어떤 곳보다 귀한

곳이 바로 믿음의 가정이며 교회이다."라고 전했다. 2부 특별 순서에서 퀸즈장로교회 교육부의 모든 부서에서 나와 부모님들과 함께 영아부로부터 청년부까지 부서별로 바다위십과 찬양을 드렸으며 영상을 통해 어린 자녀들이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다. 부모님께 드리는 편지 순서에서 퀸즈장로교회에서 어린 때부터 성장한 강태훈 집사가 눈물로 전한 감사의 메시지가 온 교회에 큰 감동을 주었다. 담임 김성국 목사는 "우리 교회를 세우신 장영춘 목사님과 교회 1세대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귀한 꿈을 품었고, 그 꿈이 이제 우리 자녀들을 통해 다음세대로 전해졌으며 계속해서 그 꿈은 멈추지 않고 이어져 나갈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온 교회 부모님들과 자녀들에게 전했다. 연합예배의 모든 순서를 김성국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김재상 기자)

"정정관호 정(정상철) 당당하게 섬기는 교회"

뉴욕만나교회, 정관호 원로목사 추대·정상철 담임목사 위임

뉴욕만나교회 정관호 원로목사 추대 및 정상철 담임목사 위임식이 5월 5일(주일) 본교회에서 열렸다. KAPC 뉴욕만나교회(정관호 목사)와 PCA 뉴욕예본교회(정상철 목사)가 하나 되어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뉴욕만나교회로 시작하며 이날 원로목사 추대 및 담임목사 위임식을 가졌다. 정관호 목사는 "목회하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기쁨과 즐거움을 주셨고 감사와 찬양이 있었다. 때론 아픔과 고통, 어려움도 있었지만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섭리였다. 목회하면서 부족함, 어리석음으로 저를 통해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분이 있다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저와 함께 주님 나라를 위해 힘쓰자"며 답사했다. 정상철 목사는 "목사 서약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대로 뉴욕만나교회를 충성된 마음으로 목사의 직분을 다하고 모든 일에 근신 단정하여 복음 증거하는 데 부합한 자로 살아가도록 노력한다"며 계속적인 지도와 기도 부탁과 감사 인사로 답사를 전했다. 정관호 목사의 인도로 시작한 감사예배는 기도 이춘호 목사(우리연합교회), 성경봉독 오영상 목사(뉴욕세빛교회), 설교 김재열 목사(KAPC 전 총회장) 순으로 진행됐다. 김재열 목사는 '아름다운 바톤 터치 (신 34:9)'라는 제목에서 "성경 속 인물들의 자연스러운 계승을 통해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예수님은 12사도에게 아름다운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바톤 터치를 근사하게 이루었다. 정관호 목사의 리더십을 잘 물려받아 전임자를 잘 섬기고 후임자로서 뉴욕만나교회의 바톤을 놓치지 않고 힘 있게 달려갈 줄 믿는다"며 "바톤을 힘 있게 이어가기 위해서 원로목사들의 간절한 권면을 수집한 실질적 적용 10가지를 전하며 아름다운 계승이 되기를 바란다"고 설교했다. 정상철 목사 담임목사 위임식은 임일송 목사(뉴욕서노회장) 인도로 서약, 공포, 위임패를 수여 후 권면 박상일 목사(뉴욕남교회), 축사 방지각 목사(뉴욕효신장로교회 원로), 답사 정상철 목사, 축하연주 김윤덕 장로(영생장로교회 은퇴) 순으로 진행됐다. 박상일 목사는 "양떼의 아픈 마음을 이해하고 목회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양떼의 마음을 잘 아는 예수님처럼 교인 한명 한명을 소중히 여기며 그들의 눈빛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기도를 하는 귀한 목회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권면했다. 성호영 목사(뉴욕서노회 동시찰장) 인도로 진행된 정관호 목사 원로목사 추대는 기도 임희관 목사(뉴욕전원교회), 추대 영상 목사(뉴욕세빛교회), 설교 사 이우영 장로(뉴욕만나교회 당회 서기), 노회장의 공포와 추대패 수여가 있는 후 축사 이종원 목사(한인동산교회), 답사 정관호 목사(한누리교회)의 축도로 마쳤다. (홍현숙 기자)



주안예교회 이전감사예배 사진

"마가의 다락방보다 좁은 이곳에서의 예배" 주안예교회, 이전감사예배

주안예교회(담임 임영건 목사) 이전감사예배가 5월 5일(주일) 오후 5시 본교회에서 열렸다. 임영건 목사는 "지금까지 예배드리던 장소 중 가장 협소하지만 가장 마음에 드는 곳으로 마가의 다락방보다 좁은 이곳에서 주님을 오직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며 "한걸음 한걸음 주님의 인도함을 받기 원한다"고 기도를 부탁했다. 또한 "교회 이전을 위해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고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안예교회는 뉴욕장로교회 직영 롱아일랜드 기도원에서 시작한 은혜회복사역(GRM)을 플러싱에서 다시 시작할 것이며 사도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을 통해 온 아시아에 복음이 전해졌던 것 같이 할렐루야 서원 이곳에서 온전히 헌신된 12제자의 비전을 다시 보는 목회사역을 이어갈 것이다"고 전했다. 윤영환 목사, 정인수 목사의 경배와 찬양으로 시작한 예배는 기도 정기태 목사(부노회장), 성경봉독 차상남 장로(노회회계), 설교 이용걸 목사(증

경 총회장), 봉헌기도 이윤석 목사(부르클렌제교회), 권면 이규본 목사(주비전교회), 축사 손한권 목사(예사랑교회), 이종원 목사(뉴욕새사람교회)로 진행됐다. 이용걸 목사는 '교회와 나갈 방향 (행 11:19-26)'의 제목을 통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을 떠나 신앙생활을 위해 흩어진 자들이 모여 세운 이민교회와 같다"며 "안디옥 교회를 모범삼아 주안예교회가 나아가길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성장하기 바라며, 마음이 착한 교인들로 가득하고 은혜가 많고 교육을 잘하고 선교하는 교회로 소문이 나 축복받는 교회가 될 줄 믿는다"고 설교했다. 이어 문종은 목사(새영장로교회)가 통성기도를 인도했고 모든 순서는 황경일 목사(뉴욕계명장로교회)의 축도로 마쳤다. 주안예교회는 4021 159th St #1 (할렐루야서점 2F) Flushing, NY 11358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일예배는 오전 11시. 자세한 것은 (631)327-8046, chryskim94@gmail.com으로 문의하면 된다. (홍현숙 기자)



뉴욕만나교회, 정관호 원로목사 추대·정상철 담임목사 위임식 사진



제 1회 뉴욕성경미술대회 참가자들이 성경이야기를 표현하고 있다

"아이들의 성경그림이 환우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퀸즈한인교회, 제 1회 뉴욕성경미술대회

퀸즈한인교회(담임 김바나바 목사)는 2024 뉴욕성경미술대회를 5월 4일(토) 오후 2시30분 본교회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했다. 본 뉴욕성경미술대회에는 110명의 참가자와 가족들이 함께했다. 참가자는 등부에 있는 교회학교 유치부에서부터 초등부 어린이들 5가지의 성경 주제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큰 배를 만든 노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골리앗을 이긴 다

윗' 중 선택하여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흰 도화지에 성경이야기를 표현했다. 시상내역은 대상 3명(300달러), 금상 3명(200달러), 동상 9명(100달러), 장려상 15명(50달러)이며 5월 18일(토) 퀸즈한인교회에서 시상한다. 수상작품은 교회와 연계된 암센터 병원에 전시할 예정이며 환우와 가족들에게 큰 용기와 위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현숙 기자 정리)

피종진 목사 5월 부흥성회

- 홍신대학교 56회 동문회 회장 010-5255-7777
-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Godbless3377@gmail.com
-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영어 연구원 동문회 회장
- 미국 Philadelphia Faith 대학원 총장 Carl McIntire(D.Min)
- 미국 Henderson Christian University 총장 Henderson Belk(Th.D)

1(수) 오전 서울 주사랑교회(이성숙 목사) 010-9013-0693
2(목) 저녁 서울 위대한 약속교회(임미향 목사) 010-6201-8374
4(토) 오전 Special Event Program
5(주) 저녁 원주 새비전교회(김성태 목사) 010-3976-1530 / 연락 정민철 목사
6(월) 저녁 대구 신승교회(임재언 목사) 010-2693-0091 주회 : 그루터기부흥사회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정태운 목사) 010-2296-0675
7(화) 오후 신산 아름다운기도원(원장 최미혜 목사) 010-7460-9926
8(수) 오후 송추 반석기도원(원장 고관은 목사) 010-2391-3004
9(목) 오전 서울 삼정호텔 (1부) 김우영 목사 가정 감사예배 (2부) 한기부 중경회장단 MT
9(목) 오후 서울 한국기독교연합회관 한국신학교
주회 : 사단법인 누가신학교(대표 김성만 목사) 010-6230-5530
9(목) 오후 서울 축복교회(김보배 목사) 010-2971-1479
9(목) 저녁 서울 강남순종교회(오승준 목사) 010-3942-8434
10(금) 저녁 서울 누가순종교회(김성만 목사) 연합철야성회 010-6230-5530
12(주) 저녁 서울 송파 달린교회(김희준 목사) 010-8633-0190
14(화) 오후 오산리 최자실목사기념기도원(원장 김원철 목사)
주회 : 예수생명부흥협의회 (총재 조성훈 목사, 대표회장 황규천 목사) 010-7754-8291
15(수) 오전 남서울중앙교회 온성도 체육대회(장소 :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실내체육관)
15(수) 저녁 엘리야기도원(원장 서재은 목사) 010-7142-2548
16(목) 오전 이천 축복교회(담임 강은숙 목사) 010-3670-8999
16(목) 저녁 서울 강남신학교(김사명 목사) 010-8331-3431
20(월) 오전 대전 주안예교회(전정순 목사) 010-7291-3377 주회 : (사)한국복음화운동본부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총재 김원준 목사, 대표회장 김재홍 목사) 010-9068-9197

제238차 해외성회(238th Overseas Assembly)
20(월) 저녁 일본(JAPAN) Narita공항 도착
20(월)~21(화) 일본(JAPAN) 동경신학교(학장 정스대만 선교사, 대학원장 피종진 목사)
22(수) 오전 일본(JAPAN) 동경 시영교회(나리타 지역) 정스대만 선교사
23(목) 일본(JAPAN) 동경 우에노공원 노전 전도성회(우에노지역) 사랑의교회(김태실 선교사)
23(목) 밤 한국(KOREA) 도착

29(수) 저녁 대구 초대교회(장영순 목사) 010-2296-0675
주회 : 글로벌 부흥협의회 (대표회장 정태운 목사) 010-2296-0675
31(금) 오후 국제신학교(이사장 강영준 목사) 010-9260-1091

대한예수교장로회 www.nasca.or.kr
남서울중앙교회 Tel. 02)3411-9191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00(개포동) Fax. 02)401-7770

시드선교회, 일본선교 세미나 개최

“누가 무목(無牧) 교회를 위해 갈꼬?”



일본선교세미나를 마치고 참석자들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 했다

시드선교회(대표 박신욱 목사/미주대표 임태호 목사)가 주최한 ‘일본선교세미나’가 6일(월) 오전 10시 남가주주든한교회(담임 김홍철 목사)에서 박영기 목사(일본무목선교회 대표)를 강사로 초빙한 가운데 열렸다. 세미나는 임태호 목사의 인사말과 최영봉 목사(남가주교회 회장)의 개회기도, 심상은 목사(OC교회 협의회 회장) 폐회기도로 진행됐다.

박영기 목사는 “코로나 시대를 지내며 긴장과 눈물과 기도 없이는 버틸 수 없음을 경험했다”며 자신의 간증을 들려줬다. 이어 그는 “은퇴까지 남은 3년을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지를 기도하며 세 가지 비전을 품었다. 첫째는 호카이도에 개척된 7개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세워지고, 두 번째는 무목교회를 세우고 싶다. 일본은 지난 코로나 시기에 일본 8천 교회에서 7천 교회로 줄었다. 천교회가 문을 닫았다. 이 교회가 바로 무목교회다. 교회 빌딩도 있고 목사관도 있으나 성도와 사역자가 없다. 이 교회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다. 세 번째는 교회가 없는 6곳의 시단위 안에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라고 소개하며 강의를 이어갔다.

박영기 목사는 “선교사는 그

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을 때 사명, 열정, 고난, 긍휼이 삶에서 나타난다.”고 말했다. 또한 선교를 위한 영적 준비로 ①하루에 한 시간 이상 기도하기 ②하루에 한 시간 이상 성경읽기 ③하루에 7번 찬송하기 ④서로 사랑하기 ⑤전도의 생활화를 꼽았다.

이어 제 2강에서는 한국선교사가 일본서 할 수 있는 사역으로 ‘무목교회 사역’, ‘일본교회와 협력하는 사역’, ‘한국선교사들과 동역하는 사역’, ‘일본에서의 교회 개척’, ‘일본의 무목교회 목회 선교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 등을 들며 일본 선교에 참여를 당부했다.

또한 박 목사는 “일본 선교를 꿈꾸는 이들이 사보로오 온다면 오전엔 일본말 공부, 오후엔 일본어 성경읽기, 일본말 기도, 주기도문, 일본말 찬송을 반복해서 두 주간 동안 훈련 후, 직접 무목교회를 방문하고 분위기를 파악하도록 한 뒤, 사역을 시작하게 돕는다.”고 설명한 뒤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고신교단 소속인 박영기 선교사는 사모 박미영선교사(일본 교포 3세)와 함께 39년 동안 일본 선교에 헌신해 오며 동경 교회개척 이후 사보로오에 7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현지 교회와

함께 섬기고 있다. 일본 선교, 무목교회 선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SEED선교회 seedwo@gmail.com 또는 (562)926-4700으로 문의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은혜한교회 그레이스 키즈데이 행사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동물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고있다

은혜한교회 그레이스 키즈데이 행사 성황리에 열려

은혜한교회(담임 한기홍 목사)는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그레이스 키즈데이 행사를 4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성황리에 열었다. 한기홍 목사는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아이들에게 복음적인 놀이문화를 심어주고자 그레이스 키즈데이 행사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 목사는 “특별히 저희 교회에는 아름다운 정월이 있어서 이곳에서 우리 교인들의 자녀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과 함께 기독교문화를 경험하게 함으로 전도할 수 있게 했다”며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함께 즐기는 모습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교회를 찾아온 어린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음식부스에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게임부스에서 게임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여름시즌 10여군데 실시하는 단기선교를 위한 펀드레이징을 하는 모습도 보였다.

(박준호 기자)



기독교교육에 관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월드미션대학교 부설기관인 PCCE

월드미션대학교 부설 PCCE

“기독교교육의 중심축을 교회에서 가정으로”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 부설 PCCE(Pacific Center for Culture and Education)는 릴리재단(Lilly Endowment)의 지원을 받아 이민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Nurturing Children through Worship and Prayer Project’를 진행하며 부모들을 대상으로 ‘Christian Parenting and Caregiving Project’를 실행하고 있다.

월드미션대학교의 최윤정 교수를 디렉터로 유창식 목사, 김지용 전도사가 학술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기독교교육 경험과 IT 기술을 바탕으로 이 프로젝트를 실행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Nurturing Children through Worship and Prayer Project’의 핵심 사역은 ‘가정예배’와 ‘세대간 통적인 콘텐츠들을 연구 개발하여 PCCE 플랫폼(pcce.wmu.edu)에 공유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가정예배를 돕기 위해 반응형 예배 슬라이드, 인도자를 위한 가정예배 가이드북, 가정 신앙교육 콘텐츠, OHANA(기독교 자녀교육 매거진), 메타버스 교육 활동 프로그램 등을 매주 제공하고 있으며 세대간 통합 예배에 대한 자료들을 공유하고 있다. 또한 ‘Christian Parenting and

Caregiving Project’를 위해 2024년에는 ‘부모코칭’, ‘사이좋은 부모 생활’, 장애인 부모 임파워링’ 등의 강좌를 개설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한국교회의 주일학교가 문을 닫고 다음 세대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으며 신앙 전승의 단절은 결국 교회의 존폐와 기독교의 급격한 쇠퇴로 이어지는 위기의식, 그리고 이러한 위기의식은 단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민교회에도 이어지게 되고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실패는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의 실패가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현재 LA 동부사랑의교회(우영화 목사), 토렌스 조은교회(김우준 목사)가 협력하고 있으며 미국 내 많은 한인 이민교회들이 앞으로 이 프로젝트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동부사랑의교회와 토렌스 조은교회에서만 150여 명이 가정예배에 참여 중이며 80여명의 부모들이 부모코칭 클래스를 수강했거나 수강중이다. 각 과정을 모두 완료하면 PCCE와 WMU(월드미션대학교)에서 수여하는 수료증을 받게 된다. 이 사역에 교회가 협력할 수 있으며 개인과 가정이 참여할 수도 있다. 관련 문의는 pcce@wmu.edu로 하면 된다.

(기사제공: 월드미션대학교)



베델한인교회에서 열린 어린이주일 행사 모습

서부교계 게시판

은혜한인교회 창립기념 부흥성회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창립 42주년 기념 부흥성회가 5월 16일(목)-19일(주일)까지 이수훈 목사(당진 동일교회 담임)를 청빙,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주제로 부흥성회를 개최한다. 16일 오후 7:30, 17일 오전 5:30, 오후 7:30 18일(토) 오전 6:00, 오후 7:30 19일(주일)1부 오전 7:20. 대예배 오전 11:00

▲ 문의 (714)446-1000

ADHD의 이해, 대처, 그리고 성장을 위한 특별세미나 개최

한인가정상담소(KFAM, 소장 캐서린 엄)는 가정의 달을 맞아 ‘주의력 결핍과잉행동장애(ADHD)’에 대한 특별 세미나를 18일(토) 오전 10시 가정상담소 사무실(3727 West 6th., Suite 320, LA, CA 90020)에서 개최한다. 이 세미나는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에게 나타날 수 있는 ADHD의 증상과 치료 방법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며, 무료로 진행된다. 강사는 소아정신과 전문의 수잔 정 박사. ADHD에 대한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신청은 온라인(<https://forms.gle/teAuAaRqtdKuFxFLe7>)으로 하면 된다.

▲ 참가 신청 및 문의: hrho@kfamla.org, (213)389-4856

100세 시대를 위한 힐링세미나

유스타파운데이션(대표 박소연)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100세 시대를 위한 힐링세미나를 11일(토) 오후 1시 남가주새누리교회(담임 박성근 목사)와 12일(주일) 오후 12시30분 갈보리사람교회(허평강 목사)에서 갖는다. 1부 치매예방 세미나는 신경내과 전문의 장원철 박사가, 2부 노인성 우울증 세미나는 성소영 임상심리학 박사가 강사로 나선다. 리버사이드 행사는 아태정신상담치료센터(APCTC) 한인 프로그램 담당 이미지 디렉터가 노인성 우울증 세미나를 맡는다.

▲ 문의: (213)255-6934

목회와 선교를 위한 AI 활용 강의

선교와 목회를 위한 정보센터(Information Center for Mission and Ministry)가 목회와 선교를 위한 AI 활용 강의를 연다. OC 지역은 5월 21일 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6-9시, LA 지역은 5월 29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6시-9시까지 10주간 진행되며 수강료는 300불. 세미나는 YouTube 다국어 Subtitle 을 활용하는 방법 및 AI Voice Generator 를 활용하여 현재 제작되어 있는 동영상에 다국어 동영상 제작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강의는 현장 및 Zoom Syn 강의로 현장 및 Zoom Syn 강의로 진행된다. 강사는 제임스 구 교수(그레 이스미션대학교)이다.

▲ 문의: kagmc01@gmail.com

커피브레이크 소그룹인도자 워크숍

캘리포니아 세리토스 센터 주관으로 이 지역에 커피브레이크 소그룹 인도자 워크숍이 18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생명생교회(18718 Grayland Ave. Artesia, CA)에서 열린다. 등록비는 일반인 \$45, 목회자 및 목회자 배우자는 \$25이다.

▲ 문의: 김수진 (714)343-9794 / sjkhanmi@yahoo.com

남가주한인교회 어린이주일 예배 일제히 드려

“작은 씨앗 속에 담긴 풍성한 축복”

남가주 한인교회에서 어린이주일예배를 맞이하여 어린이주일예배를 다음과 같이 거행했다. △기쁜우리교회(김경진 목사)에서 열린 어린이주일예배는 허창도 목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란(요 1:9-14)’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교육부에서 특별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다. △나성순복음교회(진유철 목사)는 오전 11시 어린이주일행사를 교회복쪽 주차장에서 가졌다. 또한 이날 예배시간에 성찬식을 가졌다. △나성영락교회(박은성 목사)에서 열린 어린이주일예배에서 박은성 목사가 ‘자손을 축복하라(민 6:22-27)’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어린이 찬양팀이, 2부와 3부예배는 유초등부 어린이들이 특송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부사랑의교회(우영화 목사)에서 열린 어린이주일예배는 우영화 목사가 ‘어린이와 같은 신앙으로 어린 아이를 영접하십시오(마 18:1-6)’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베델교회(김한요 목사)에서 열린 어린이주일예배는 강문구 목사가 ‘믿고 뛰니 낚아채셨다!(출 26:1-6)’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2부와 3부예배시간에는 C2C청소년 합창댄스팀의 특별순서가 있었다. △충현선교교회(국윤권 목사)는 EM주최 어린이주일 연합예배를 오전 11시30분에 가졌다. 경

배와 찬양으로 시작된 연합예배는 Charis Choir이 찬양, 다니엘 권 장로 기도, 다니엘 정 목사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요일 4:7-12)’라는 제목의 설교로 이어졌다. 또한 유아 세례식도 거행했다. △새생명비전교회(강준민 목사)에서 열린 어린이주일예배는 강준민 목사가 ‘작은 씨앗 속에 담긴 풍성한 축복(시 126:5-6)’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주님의영광교회(신승훈 목사)에서 열린 어린이주일예배는 신승훈 목사가 ‘자신과 자손이 복을 받는 비결(왕성 12:13-20)’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LA 사랑의교회(김기일 목사)에서 열린 어린이주일예배는 아이들을 위한 점퍼와 팝콘, 솜사탕과 음료와 선물을 아이들에게 나누어주는 시간을 가졌다. △토렌스제일장로교회(고창현 목사)는 자녀주일을 맞이하여 3부예배후 윌슨파크에서 전교인 피크닉을 가졌다. △한길교회(고광선 목사)는 어린이주일예배를 맞이하여 성찬식을 가졌다. 또한 고광선 목사가 ‘다윗과 그리스도(14) 값싼 회개, 불완전한 용서’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 외에도 거의 모든 교회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행사를 갖고 어린이들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준호 기자)



발달장애인을 위한 제 39회 사랑의마당축제 참석자들

발달장애인을 위한 제 39회 사랑의마당축제 성황리에 열려

발달장애인을 위한 제39회 사랑의마당축제가 5월 4일(토), 오렌지카운티 부에나파크 지역에 위치한 ‘Buena Park Junior High School’에서 열렸다. 1000여 명의 발달 장애인들과 가족들, 많은 봉사자들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룬 가운데 열린 사랑의(마당)축제는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가 풍성하고, 장애사역 교회나 단체의 홍보, 정보교환 등이 이루어지며, 경품추첨, 댄스파티 등 신나는 놀이들로 진행되었다. 본 축제는 씨드교회(담임 권혁민 목사), 해피빌리지(KAVC 미주한인봉사단), 남가주말 선교단(단장 이종희 목사)에서 공동주관하고 총 40개 교회와 단체들이 협력하여 꾸며졌다. 1부 순서로 남가주말 이종희 단장의 환영사와 오버플로잉 교회 찬양팀의 찬양으로 시작된 예배에서는 해피빌리지 김정호 국장의 기도 이어 은혜한인교회 Jesus’ Light 유인식 형제가 특송을 불렀으며, 권혁민 씨드교회 담임목사가 계 19:7-8절 말씀을 전해주었다. 권혁민 목사는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생각할 때 몇 가지 갖는 오해가 있다. 그중에 하나는 천국 가면은 되게 지루할거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천국은 우리의 모든 기쁨이 가장 크고 가장 극대화되는 곳이다. 두 번째는 천국에 갈 때 우리의 육체는 천국에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입으셨던 몸처럼 우리역시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천국은 또한 매일 매일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천국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마당축제는 각 부스에 마련된 푸짐하고 맛있는 음식과 SOW(Seed of Worship)팀의 찬양공연과 장애인과 함께 하는 신나는 댄스파티, 또한 양희원 집사(남가주말)의 사회로 진행된 재미난 레크리에이션과 행운권 추첨의 푸짐한 상품 등으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박준호 기자)



50% 훌쩍 장애 초고령사회... '한국교회 환대할 준비됐나?'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두 아들 딸을 슬하에 둔 광경옥(66)씨의 고민은 해마다 커지고 있다. 두 자녀 모두 지적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 광씨는 7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아이들이 정부와 사회단체 등에서 일 자리 연계 등 지원을 받고 있지만, 나이 들어 제가 세상을 떠났을 때 아이들을 마음 놓고 맡길 곳이 없다"며 "자녀들이 고령으로 은퇴해도 자립할 수 있을지, 자립을 도울 단체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점 좋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품고 살아간다."고 전했다. 이어 "장애인들이 늙어서도, 보호자인 부모들이 없어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적 제도와 한국교회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65세 이상인 우리나라 장애인 비율이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20% 이상)를 넘어선 약 50%로 조사되면서 이들에 대한 교계 역할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교회가 장애인 사역으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 장애인 고령층까지 아우르는 복합 사역에 나서야 한다고 말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등록 장애인 264만6922명 가운데 65세 이상이 54.3%로 집계됐다. 9년 전인 2014년(43.3%)보다 11%포인트나 치솟았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18.2%)과 비교해도 3배 가량 높다. 장애인 1인 가구 비율은 26.6%로 4가구 중 한 가구가 홀로 거주하는 셈이다. 특히 장애인의 우울감 경험률(12.4%)은 전체 인구의 우울감 경험률(4.7%)보다 2.6배 높았다.

거룩한빛광성교회(곽승현 목사)에서 장애인 사역을 담당하는 박순심 목사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실제 사역 현장에서 장애인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음을 절절히 느낀다"며 "장애인들이 나이가 들수록 이들을 돌보는 보호자들이 점차 사라진다. 그들의 그늘이 됐던 부모님이 사라지고 복지의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박 목사는 "한국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장애인들을 사각지대에서 건져내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복지예산 연결과 세대별 맞춤 예배, 교회 내 장애인 시설 마련 등을 제시했다.



국내 외국인, 인구 중 4.8%... '이주민 선교' 새 판 짜라!

함께 출산율은 빠르게 줄지만 국내 체류 외국인은 빠르게 늘면서 국내 선교계가 이주민 대상 선교와 역파송 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총회세계선교회(GMS·이사장 박재신 목사)도 7일부터 양일간 서울 중구 서울유스호스텔에서 '한국 이주민 다문화 사회 속에서 선교'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고 이주민 선교의 길을 모색했다. 심포지엄을 관통했던 관심사는 '이웃을 향한 선교'였다. 우리나라에 온 이주민 이웃과 선교적 삶을 살자는 의미다. 이미 이주민 선교는 2009년 서울에서 열린 로잔 국제리더십회의를 기점으로 우리나라 선교계의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전철영 GMS 선교 사무총장은 '세계 기독교 시대에서의 선교적 변화와 방향'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해외 파송을 통한 선교는 코로나 이후 큰 도전에 직면했다. 우리 주변에 온 이주민이 선교 대상"이라면서 전통적 선교의 한계를 언급했다.

실제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는 빠르게 늘고 있다. 법무부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지난해 12월 기준 250만7584명으로 우리나라 인구 중 4.89%를 차지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본인 또는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외국 국적인 사람을 뜻하는 '이주 배경 인구'가 5%를 넘으면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분류한다. 이미 우리나라는 다문화·다인종 국가

로 진입하기 직전인 셈이다. 허성희 GMS 사역원장은 우리나라 이주민 선교가 변화한 선교 지형의 대안으로 꼽았다. 허 원장은 "이주민에게 단지 복음을 전하는 차원을 넘어 이들이 다민족으로 향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를 열어야 한다"면서 "이주민 사역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동시에 평신도 참여의 가능성 검토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해외 선교를 위한 그동안의 전략 수립 방향을 국내 이주민 선교 전략 수립으로 전환하라는 제안이다.

그러면서 "더이상 우리만의 언어와 문화적 부산물로 포장된 복음을 현지인에게 강요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한국교회가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변화와 사역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GMS 한국 외국인 지부'가 이주민 선교를 위해 준비된 자원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한국 외국인 지부는 해외 선교사로 활동했던 시니어들이 귀국한 뒤 우리나라 이주민 교회 개척과 유학생·다문화 청소년·근로자 사역을 하는 전문 사역 부서를 말한다.

박재신 이사장은 "GMS 한국 외국인 지부가 변화한 선교 지형 속에서 의미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본다"면서 "이주민 사역을 통해 변화한 선교의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진 부스를 준비 중이다. 영안교회 부교역자인 이동현 목사는 "영상을 넘어 가상현실 기술까지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됐지만, 사진만의 강점이 있다"며 "교회의 작은 섬김에 다음세대와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굉장히 뿌듯하다"고 말했다.

가정의 달을 즈음한 가족사진 촬영은 중·소형 교회들도 시도해볼 적하다. 세종중앙교회(정원재 목사)는 개척 2년만인 2014년 지역 태권도장에서 상가 7층으로 예배당을 옮긴 뒤부터 성도들의 가족사진을 남겼다. 교회는 200㎡(60평) 예배당과 165㎡(50평)짜리 교회 교육실을 사진 촬영장으로 활용했다.

정원재 목사는 "심방을 갖는데 가족사진이 없는 가정이 대부분이었다"며 "교인들에게 추억을 남겨주자는 취지로 사역을 이어오고 있다. 지금은 심방을 가면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볼 수 있는 사진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좋다"고 했다. 교회 구석구석을 촬영장으로 쓴 교인들은 2년 전부터 교회 밖 공원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정 목사는 "주변 개척교회에 사진 소품을 빌려주기도 한다"며 "사진은 작은 재정으로도 교인들에게 큰 선물을 건낼 수 있는 좋은 도구"라고 평가했다.



경기지역 학교들, 유해성 지적받은 도서 2528권 '폐기'

시민단체, 지난해부터 일부 성교육 도서 폐기 주장

시민단체가 유해도서라고 지적한 일부 성교육 도서들을 경기지역 학교들이 최근 1년간 2500권 이상 폐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이 해당 도서들

에 대한 처리 공문을 두 차례 보낸 것에 일선 학교들이 화답한 것으로 보인다.

7일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터 받은 '학교도서관 성교육 도서 폐기 현황'을 보면 경기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29일까지 1년간 성교육 도서 총 2528권이 폐기됐다. '스파이더맨 가방을 맨 아이' '나의 첫 젠더 수업' '생각이 크는 인문학 시리즈' 등 대다수 폐기 도서들은 시민단체가 유해도서로 지정한 책들이다.

시민단체는 지난해부터 부적절한 내용이 담겨있는 일부 성교육 도서들에 대한 폐기를 주장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관내 초등학교에 "부적절한 논란 내용이 포함된 도서에 대해 교육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치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지난 2월에는 '성교육 도서들의 처리 결과'를 제출하라고 전달하기도 했다.

콘퍼런스 통해 인도 청년 70명 사역 헌신

오메가교회 '킹덤 콘퍼런스' 이후 인도 현지인들 자체 네트워크 형성

대전 오메가교회(황성은 목사)가 인도 콜카타에서 '2024

글로벌 킹덤 콘퍼런스'(사진)를 열고 실리구리 지역에 교회를 개척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달 열린 콘퍼런스에는 700여명이 참석했으며 70여명의 인도 현지 청년이 사역자와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결단했다.

청년과 다음세대의 영적 성장을 위해 시작한 킹덤 콘퍼런스는 현재 40여개국 200여명이 참석하는 글로벌 집회로 성장했다. 그중 인도는 온라인 콘퍼런스 참석자 중 하나였던 현지인을 통해 연결돼 지난해 첫 번째 현지 콘퍼런스로 이어졌다. 이후 인도 현지 목회자 및 청년 리더 20여명을 중심으로 자발

적 네트워크가 형성돼 지난달 두 번째 인도 콘퍼런스가 열린 것이다.

첫 번째 콘퍼런스 후에는 킹덤바이블칼리지 과정에 입학한 A전도사를 통해 실리구리 오메가교회가 개척되는 열매도 있었다. 킹덤바이블칼리지는 사도행전적 사역자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돼 성경 상담 영성 선교를 가르치는 단과대학으로 구성돼 있다. 이를 통해 비전을 받은 A전도사가 가정교회를 시작했으며 이 교회가 실리구리 오메가교회로 탄생했다. 두 번째 콘퍼런스 헌신자 70여명 중 30여명도 킹덤바이블칼리지에서 훈련받기로 결단하면서 오메가교회는 제2, 제3의 A전도사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기도는 가족 위한 최고의 선물' ... 가정 회복 기도회 잇따라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 없는 가정은 하늘의 온갖 폭풍에 그대로 노출된 지붕 없는 집과 같습니다."

조인 요원교회 목사의 외침에 회중은 '아멘'으로 응답했다. 6일 서울 강동구 요원교회(주경훈 목사)에서 열린 CPR

기도회 5월 정기모임 현장에서다. CPR 기도회는 'Cry(눈물) Pray(기도) Revive(부활)'의 약자로 요원교회가 매월 첫째 주 월요일 나라와 민족 교회 선교 가정 환우 등을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다. CPR 기도회는 교회 안에 있는 6개의 중보기도팀의 연합모임 성격이다. 교회 안에

긴급한 어려움을 당한 교인이 있을 때는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에서 '119 기도회'라고도 불린다. 5월 기도회는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을 향한 가슴앓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공휴일임에도 200여명의 교인이 참석해 2시간 동안 뜨겁게 기도했다. 강동구에 사는 신경재(63) 박미정(54·여) 집사 부부도 이날 기도회에 참석해 가족의 평안을 위해 기도했다. 지난 1월부터 빠짐없이 CPR 기도회에 참석하고 있다는 박 집사는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산다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며 "기도야말로 자녀들에게 부모가 줄 수 있는 최선의 선물인 것 같다"고 말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전국 각지의 교회들이 가족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로 기도를 택하고 있다. 경기도 용인 아름답교회(김영운 목사)는 5월 한 달간 어머니기도회를 이어간다.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되는

기도회에선 찬양사역자 김명선 목사와 김영운 목사, 조영민 나눔교회 목사가 각각 '모든 시선을 주님께' '자녀의 5가지 사랑의 언어' '내가 부르다 죽을 노래'를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다. CCM 작곡가 영평안과 CCM 가수 조찬미 임성규는 찬양콘서트 '같이 걸어가기를' 통해 위로를 전한다. 김영운 목사는 "성도 가운데 40%가 초등학생 중학생 자녀를 둔 40대 젊은 부부다. 엄마의 의무를 맡은 교인들이 청지기의 마음으로 자녀와 건강한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회 자리를 마련했다"며 말리기 4장 6절을 인용했다.

인천 계성교회(심영기 목사)는 이날 매주 금요일마다 '가족 사랑 특별 기도회'를 진행한다. 교인들은 어린이날을 앞둔 지난 3일 '자녀를 위한 기도회'에서 두 손을 모았고, 어버이날을 즈음한 10일엔 '부모를 위한 기도회'를 연다.



선교의 창 (237)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한국 축구대표 팀의 참사(慘事)와 선교적 적용

아프다. 참담(慘憺)하다. 어떻게 아시아를 대표하는 맹주로서 FIFA 랭킹 23위인 한국 축구가 랭킹 134위인 인도네시아에게 나가떨어질 수 있던 말인가? 더구나 The 2024 AFC U-23 Asian Cup 대회는 금년 파리 올림픽 출전권이 걸려 있었다. 1988년 서울 올림픽부터 매년 본선 무대에 올랐던 한국은 이날 8강에서 탈락하면서 10회 연속 본선 진출에 실패했다. 한국 축구가 올림픽 무대에 오르지 못한 것은 1984년 로스앤젤레스(LA) 대회 이후 40년 만이다. “도하 참극이자 한국 축구의 대재앙”이라 불릴 만큼 실망스러운 경기 결과에 국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우리가 다 아는 바 축구는 수많은 운동경기 중 하나가 아니다. 일종의 국기에 가깝다. 월드컵 대회에서 보듯 국가대항 경기가 있는 날이면 마치 나라의 운명이 걸린 것처럼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다. 이번에 우리는 대한민국 축구의 추락을 보면서 선교적으로 적용해볼 필요가 있다. 한인 세계선교, 이대로 가도 좋은가? 우리는 왜 열방을 위해 피와 땀과 눈물을 쏟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곳에서 패배당하고 있는가? 드러나는 현상은 누적된 원인으로 말미암는다. 이참에 우리 선교계는 축구계의 난맥상(亂脈相)을 반면교사(反面教師)로 삼아 혁신이 일어나길 소망한다.

1. 정신적인 안이 함

“호랑이는 토끼를 잡을 때 최선을 다 한다.” 인터넷 자료

에 의하면 200킬로 체중의 호랑이가 토끼를 쫓을 때 100미터를 5초에 달리는 속도로 전력 질주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매사에 최선을 다 해야지 약자라고 깔보면 안 된다는 교훈이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 대표팀은 인도네시아 팀을 일본계 사실이다. 그간 한국U-23 팀은 인도네시아 팀에 5전 전승으로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었다. 구지 FIFA 랭킹 따지지 않

아가야 한다.

2. 전술 전략의 패착

U-23 한국 축구 대표 팀은 4/26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아시안컵 8강전에서 인도네시아와 연장전까지 갔다. 스코어가 2-2 무승부여서 승부차기에 들어갔고 최종 10-11로 지고 말았다. 한국 팀은 이날 경기에서 슈팅 숫자도 6대21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운동경기를 인생에 비유하고 있다. 한국 U-23올림픽 축구 대표 팀의 실패는 예견된 인재(人災)였다. 한인 세계선교는 행정구조와 사역전략에서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

더라도 전력상 우위에 있었다. 결국 안이한 태도가 쓰러린 패배로 이어졌다. 선교현장도 마찬가지이다. 종교개혁 이후 기독교 선교는 힘의 논리가 지배해왔다. 1801년부터 1900년까지 서구 열강들이 제 3세계 나라들을 식민지화하면서 선교사들도 군인, 상인들과 함께 입국했다. 저들 눈에는 경제나 문화가 낮은 약소국들의 사람들이 수혜의 대상으로만 보였을 것이다. 제국주의적 선교의 큰 오류였다. 한인 선교는 어떠한가? 우리는 국력이 뒤진 아시아, 아프리카 사람들을 대할 때 너무 쉽게 상대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한다. 우리가 현지인을 하인 부리듯 함부로 대하면 언젠가 되치기 당할 수 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누구를 만나는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섬기는 자세로 나

말렸다. 인도네시아 팀은 조직력, 체력, 스피드, 팀워크에서도 한국보다 앞섰다. 8강전에 앞서 인도네시아 팀은 우승 후보인 호주를 꺾고 중동의 강호인 요르단을 4:1로 격파했다. 이러한 승리가 어찌 우연인가? 신태용 감독은 인도네시아 팀을 맡은 후 4년 동안 주도면밀한 준비를 했다. 특히 유럽 프로팀에서 뛰고 있던 인도네시아 출신 2중국적 자들을 여러 명 귀화시켰다. 이에 비해 황선홍 감독은 상대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으며 전술적 패착도 있었다. 그는 이전 일본과의 경기에서 재미를 보았던 쓰리 백(3-back)을 고수하며 수비라인을 뒤로 내렸다(황 감독의 실수 인정). 이에 인도네시아 선수들은 리듬과 기(氣)가 살아나면서 빠른 역습으로 뒤 공간을 파고들었다. 한국 팀은 전반에만 2골을 먹

었다. 한인 선교의 최대 강점 이면서 약점은 무엇인가? 용감하다는 것이다. 마치 낙산 타고 투하되듯이 돌진하며 빠른 시일 내에 결과물을 내려한다. 이런 성급한 시도는 현지 나라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밀리게 된다. 우리 선교는 좀 더 멀리 내다보고 선교지에 대한 역사, 문화, 종교 등 심층적인 연구가 선행된 가운데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무엇보다 옆 나라에서 성공적 사역모델이라고 무조건 이식하면 안 된다. 일본은 일본이고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이다. 그 나라와 족속에 맞는 맞춤형 모델을 창안함이 관건이다.

3. 패권적 지도체계

대한 축구협회는 지난해 3월, 논란 속에 독일인; 위르겐 클린스만을 A대표 팀 감독에 선임했다. 그가 감독으로서 무능하다는 우려가 뒤따랐으나 밀어붙였다. 결국 아시안컵에

한가? 교단 선교부의 이사장 자리는 노른 자리에 해당된다. 대개 총회장 뺀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대형교회의 목회자들이 맡는다. 교회 해외 선교 부장도 전문성보다는 힘 있는 장로들이 돌아가며 역임한다. 축구계든 선교계든 이런 지도부 구성은 인맥을 형성하게 되며 안으로 썩게 된다. 당연히 그 판단들도 오류가 많을 수밖에 없다.

4. 엘리트 위주 정책

한국은 국민 대다수가 참여하는 생활체육보다 재능이 있는 소수 정예를 차출하여 유명 지도자에게 집중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게 하는 엘리트 체육 중심이다. 만일 저들 선수들이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큰 경기에서 입상을 하면 국민적 영웅이 된다. 왜냐하면 선수들은 스포츠 경기를 통해 국위를 선양하고 애국심을 고취시키며 경제적 파급효과까지 낳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유의 선

이 전면에서 뛰고 절대 다수의 성도들은 지상과업에서 아예 뒷짐을 지고 있다. 지난 2천년 동안 기독교 선교가 인구 증가율을 따라잡지 못한 주된 원인이 여기에 있다. 방책은 엘리트 체육 기조 위에 생활체육을 강화해야 하듯 선교도 파송 받은 사람들 외에 모든 성도들이 동원되도록 구조를 일원화해야 한다.

맺음 말

2002년 한일 월드컵 때의 주역이었던 이천수는 최근 한국 축구가 10년 후퇴하게 되었고 탄식을 했다. 이번 참사는 파리행 티켓을 향해 부른 꿈을 꾸었던 우리 선수들에게는 처절한 악몽이 되고 말았다. 저들 유망주 태극전사들은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막히게 되었다. 연금을 탈 수 있는 기회도 사라졌다. 무엇보다 세계 축구계에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올림픽 장이 닫히고 말았다. 땀방울이 피

수가 되기는 쉽지 않다. 인터넷 자료에 의하면 한국에서 축구하는 초, 중, 고, 대학의 선수들 중 K리그 입단하는 사람은 고작 상위 0.78%이다. 국가대표가 될 확률은 0.38%이다. 한 마디로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다. 하지만 세상은 비정하다. 이름을 날린 선수의 선수 외에 99.62% 낙오자가 된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다. 엘리트체육과 대척점에 있는 개를 뛰게 한 축구협회의 결정이 회복할 수 없는 무리수가 된 것이다. 손태규 교수는 이 모든 원인이 “대한축구협회를 전문성이 없는 정몽준16년, 정몽규 11년 등 27년째 족벌체제가 집권함으로써 기인한다고 여겼다. 인사는 만사다. 한인 선교의 의사 결정체계는 어떠

방울이 되도록 된 저들의 한탄이 얼마나 클까? 금 번 사태는 비단 선수와 축구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불명예를 떠안게 되었다. 선교현장은 스포츠처럼 정경적인 이벤트가 있는 것은 아니다. 마치 누룩처럼 하나님 나라가 퍼져 나간다. 이 중말론적 거룩한 사역에 속도감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뭔가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그것은 “모든 이가 모든 곳으로!”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처럼 선교사, 파송기관, 후원교회, 교단,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소명과 은사를 따라 토피바퀴처럼 네트워크 되어 사역적으로 함께 움직이는 것이다. 그 시발점은 결정권을 가진 지도부에 달려있다. 최근 한국 축구계의 패착(敗着)이 우리 선교계에 큰 경종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

Jrsong007@hanmail.net

One Story 21세기 말씀의 삶

홍요셉 선교사 (P국, 중동선교전략가)

32강 옷니엘, 드보라, 바락, 에훗 그리고 기드온 (2) (사사기 1-8장)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대적에게 팔아 넘기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 세대는 광야에서 죽고 광야 세대는 가나안에서 죽고(삿 2:10) 그 다음 가나안 세대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의 주위에 있는 신들,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삿 2:11-13).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 아스다롯은 바알의 부인이었는데 ‘바알’을 섬겼다는 것은 ‘풍요’를 위해 좋다는 신은 다 섬긴 것입니다. 이들은 농경을 주축으로 하는 가나안에서 가장 필요한 비를 주관하는 신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에서 살피본 ‘현실’이라는 ‘우상’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신이 강하고 전쟁에 능한 것은 알지만 여기는 가나안이고 우리들의 신은 농사를 주관하는 풍요의 신이므로 가나안에서는 가나안 신을 섬겨야 한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네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신 20:16-18)고 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실 뿐 아니라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으로 괴로움을 더하십니다(삿 2:12-15).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고 괴로움을 더하시어만 그들은 가나안 땅이 그들이 살 곳도, 마음을 둘 곳도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하나님도 쫓아내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힘이 미치지 못하여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

다. 그들은 급속도로 빠르게 ‘가나안인’이 되어 갔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살라’시는 하나님보다, 이전에 조상들이 애굽에서 어떤 기적을 보고 흥해를 어떻게 건너고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요단을 어떻게 건너 가나안 전쟁을 어떻게 승리했는지 지금 그들 눈앞에는 ‘풍요의 신’ 바알이 좋고 가나안의 ‘철병기’(삿 1:19)가 더 매력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워 그들을 노략한 자들로부터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은 사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보다는 오히려 살만하면 또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듯 섬겼습니다(삿 2:16,17). 이스라엘 백성은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당할 때는 슬피 부르짖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지만 상황이 호전되면 여전히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고 그러한 ‘패역의 길’을 그치지 않고 반복하였습니다(삿 2:18,19).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은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

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 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삿 2:20,21). 결국 남겨진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수 2:22, 3:1-4).

사사기의 패턴

구약 역사서의 패턴이면서 사사기에 부각되는 유형은 첫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인데 죄가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둘째, 백성의 범죄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징계는 범죄를 반복하는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한 ‘사망’인 것입니다. 셋째, 징계를 받은 백성이 부르짖는 것인데 그들의 부르짖음은 자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한 진실한 회개가 아니라 당

하나님을 버림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또 받으며 사는 어리석은 백성들의 진흙탕 같은 삶이 뒤범벅 될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어떤 삶을 살 지를 창조 전에 아셨습니다. 그래서 창조 전에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순종하며 ‘그 말씀에 근거’하여 범죄치 않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전진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을 원하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자신들이 ‘백성’인 곳이 아닌 ‘자신들이 왕’인 곳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한 덩어리’로 보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죽고 죽어 나갔지만 한 사람, 야곱으로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야곱이 하나님과 아버지 이사를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라헬과 행복할 시간을 보내다 본격적인 하나님의 숨통 조이기에 들어가기 직전 즈음인 것입니다.

hfamilyfa@gmail.com

매일가정예배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원로)
sangdkim@yahoo.com

월 주님 안에서 구하는 자들 (눅 11:9-13) 찬 370장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육신 안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구하는 자들이다. 성령 안에서 나타나는 것을 알고 누리며 그 영광이 나타나는 지체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구원 받기 전에는 나의 중심으로 나의 소원을 위해 살지만 구원 받은 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 되어 진다. 이제는 내 안에 주인으로 생명으로 사시는 주님의 소원과 나의 소원이 일치되어 그 안

에서 주님과 하나 되어 기쁨으로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구할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은혜로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응답을 그 안에서 누리게 된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는 자가 된다.

화 네 속에 있는 빛 (눅 11:33-36) 찬 502장

빛이신 주님이 임하심의 실상을 알고, 보고 누리라. 생명의 빛이 나타나는 실상을 누리라. 생명의 빛이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라. 믿음으로 보지 못하여 어둠에 있지 않게 하라. 항상 영적 실상의 빛을 보고 누리라. 성령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거룩한 빛이 나타남을 누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빛의 자녀로 만드셨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였고, 성령 안에서 생명의 빛을 발하는 자로 세상

에 두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두신 이 빛이 발하는 것을 믿음으로 깨어 있지 않음을 통하여 덮어 두는 상황에 있지 않게 하여야 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빛의 옷을 입혀 주셨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생명의 빛을 발하는 자로 존재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딸기나무에 불로 임하여 불도 꺼지지 않고 나무도 타지 않는 계속 타는 불이 있어서 그 빛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다.

수 마음이 깨끗한 자 (눅 11:38-41) 찬 264장

구원받은 자들은 마땅히 성전인 나의 마음을 부정하게 하지 말고 거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죄의 생각, 사망의 생각을 품지 않도록 항상 깨어 지켜야 한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겉은 거룩한 모양을 갖추었지만 그 마음 안에는 무덤과 같이 자신을 죽이는 이웃을 죽이는 사망의 생각이 살아 있는 창고인 것이다. 마음에서 들리는 소리가 사망의 소리인지 아니면 생명의 소리인지 항상 살피라.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생명의 소리가 나타나는 가득한 마음의 상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내 입에서 생명의 말이 나타나는가 아니면 사망의 말이 나타나는가를 항상 확인하여 보라. 생명의 향기를 품어내는 고귀한 삶을 살아야 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셨다.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열심히 확인하여 보라.

상 살피라.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생명의 소리가 나타나는 가득한 마음의 상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내 입에서 생명의 말이 나타나는가 아니면 사망의 말이 나타나는가를 항상 확인하여 보라. 생명의 향기를 품어내는 고귀한 삶을 살아야 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셨다.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열심히 확인하여 보라.

목 평토장한 무덤 (눅 11:43-46) 찬 316장

평토장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신다. 그 안에 사망이 가득한 자들이다. 겉으로는 경건으로 포장한 자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사망 안에서 사망에 속하여 사망을 누리고 사는 자들이다. 영원한 형벌을 받을 자들이다. 무덤에서 사는 자들이다. 어리석게도 무덤으로 알지 못하고 자신의 자랑스러운 집으로 알고 살고 있다. 사망의 것을 누리지 말라. 추한 것을 누리지 말

라. 마귀의 종과 같이 살지 말라. 추한 것을 자랑하고 사랑하며 누리고 하지 말라.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알아야 한다. 영적 소경으로 온전히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종으로 살면서 자신은 거룩한 자라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 주님 안에서 진실 된 자로 굳게 서서 그 중심에 사망의 무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로 살아가자.

금 하나님의 소유 (눅 12:6-7) 찬 438장

만물의 주인에게는 주인의 소유된 것들이 모두 소중하다. 작은 참새까지도 창조주가 되시는 주인의 소유이기에 귀한 존재로 보호 받는 것이다. 하물며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더욱 특별히 하나님께 영원히 소중한 자임에 틀림없다.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 하신다.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요 하나님의 지체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것이라고 불러 주신다.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시는 자로 새로 지음을 받은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며 그 빛을 비추는 자인 것이다. 하나님에게 소중한 자이다. 하나님의 소유 된 자로서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고, 주 안에서 자유 함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자.

토 주님을 부인하지 말라 (눅 12:8-12) 찬 94장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을 알고 살아야 한다. 사람 앞에서 주인을 시인하고 절대로 부인하지 말라. 주인을 잊고 살지 말라 어둠에서 살지 말라 주인 앞에서 살고 주인 안에서 사는 것이어야 한다.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다. 그 충만 안에서 살아라. 주님을 부인하지 말라 주님을 시인하며 살아라. 주님을 높이며 섬기며 살아라. 주님을 모

독하지 말라.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다. 주님 안에서 할 말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보여 주시는 것이다. 성령이 생명이 되어 계신다. 생령 안에서 누림으로 죽음에서 자유 하라. 죽음의 생각에 빠지지 말라. 하나님의 생령에는 죄가 없고 사망이 없는 것이다. 그 생령은 부활하신 생령이다. 그 생령 안에서 누리고 살아라.

교회음악 이야기(58)

예수 사랑하심은 Jesus Loves Me

윤임상 교수
(월미선대학교대학원)



우리의 찬송가 가운데 '예수 사랑하심 (Jesus Loves Me)' 찬양은 역사상 가장 사랑받는 어린이들의 찬송가입니다. 이 찬양을 기억하면 필자가 어린 시절 겪었던 추억이 하나 떠오릅니다. 1970년대 초등학교 4학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해 5월의 마지막 주 정도로 어렵듯이 기억합니다. 필자가 주일학교를 간다고 나서서는 교회에 가지 않고 친구들과 함께 공놀이를 하자 서리를 해서 구워 먹었던 그날, 제 평생에 저의 엄마로부터 가장 큰 꾸지람과 회초리로 때를 맞으며 그날 밤, 엄마가 주신 벌로 저는 이 찬송을 목놓아 불러야 했던 추억이 있는 찬송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신앙에 힘입어 모태 신앙으로 어려서부터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철칙이었던 필자는 단짝이었던 친구가 몇 주 전부터 계획한 이 공놀이를 하자 서리 모임인 이날 꼭 함께 가자 라는 그 제안을 뿌리치지 못하고 함께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신나게 놀고 감자 서리를 해서 배불리 먹고 마음 한편에는 큰 두려움을 머금은 채 집으로 들어온 그날 필자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필자가 교회를 가지 않았던 사실을 알았던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으로 갑자기 변신해 계신 모습을 보게되었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필자에게 "어디 다녀왔니" 딱 한 마디만 묻고 교회에 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곧바로 바지 종아리를 울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 천벌을 받을 놈아"라고 언성을 높이며 무자비하게 종아리에 피멍이 들게 회초리를 내리치셨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벌을 더 주셨습니다. 하나는 반성문을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내가 가장 즐겨 부르는 찬송가를 찾아 10번 부르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반성문을 쓰는 가운데 필자의 머리에 가장 떠올랐던 찬송은 '예수 사랑하심'이 찬양이었기에 그날 밤 필자는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된 채 이 찬송을 불러야 했던 아련한 추억이 있는 찬송가입니다. 당시 노래 부르기를 좋아했던 자식으로 아셨던 엄마가 필자에게 그 무서운 채찍과 함께 당근을 주려고 하셨던 현숙한 어머니로 기억됩니다.

이 찬송가 '예수 사랑하심'의 가사는 안나 바틀렛 워너(Anna Bartlett Warner, 1827-1915)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안나와 그의 언니 수잔(Susan Warner, 1819-1885)은 19세기 중후반에 활동했던 소설 작가들입니다. 안나는 당시 에이미 로스롭이라는 필명으로 글을 썼습니다. 그녀는 '로빈슨 크루소의 농장 (Robinson Crusoe's Farmyard)', '달러와 센트 Dollars and Cents', '웨스트포인트 색채들 In West Point Colors' 등 31편의 소설을 썼습니다. 두 자매는 106권의 소설과 동화책을 출간했으며, 그 중 '헤이즐 Wych Hazel', '러더포드 씨의 아이들 Mr. Rutherford's Children', '샤테무크의 언덕 The Hills of the Shatemuc' 등 18편은 함께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안나는 1858년 '전투자들의 찬송가, Hymns of the Church Militant'와 1869년 '나그네 찬송가 Wayfaring Hymns'라는 두 권의 시집을 출간했습니다.

찬송가의 제목 '예수 사랑하심'이라는 말은 그녀의 언니가 1860년 써서 출간하여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소설 '말과 인장, Say and Seal'에 처음 등장합니다. 이 소설에서 주일학교 교사인 린든(Mr. Linden) 씨가 그의 제자 조니 팩스(Johnny Fax)를 위로합니다. 죽어가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 이 말을 하는 장면을 보고 안나가 그것을 말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녀는 성경 교전 6:19-20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말씀을 적용하여 이 찬송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저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권면하는 최종적 교훈입니다. 즉 성도들은 자기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어 성도들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이고,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 주어 사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기 몸을 타락시키거나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를 가지고 1862년 윌리엄 배첼더 브래드버리(William Batchelder Bradbury, 1816-1868)가 후렴구에 "예,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네"를 더해 가사에 선율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전 세계 교회에서 어린이 찬송가 중 가장 인기 있는 찬송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 밖에 없는 우리를 피로 값 주어 사시고 구원해 내신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 사랑 이것이 명확하다면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의 핵심, 중심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야 합니다. 켈빈(J. Calvin, 1509-1564) 선생님은 오늘 말씀과 연결된 본 서신 1:29 절을 주시하시면서 "우리는 자신의 영광을 버리지 않는 한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 누구든지 자신을 자랑하는 자는 실로 하나님을 거슬러 자랑하는 셈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풍요 속에 빈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온 세상은 현대문명이 주는 이기들이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명품들이라 자랑하며 자신들을 드러냅니다. 이에 따라 온갖 편리함이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고 있는 듯 한데, 웬지 마음 한편에는 더 큰 공허함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의 이 공허함을 메꾸어 줄 수 있는 것은 나의 노력과 자랑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바로 깨닫게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분이 사랑하시기 때문이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사실답게 하기 위해서는 단순함과 순수함을 지닌 어린이와 같은 동심의 마음을 가진 세계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필자는 이 글을 마치며 동심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 단순하게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채 순수한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불렀던 70년대 오월의 마지막 주일 저녁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iyoon@wmu.edu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6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모든지점 - 대형 파랑장 원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뉴저지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선교 편지

이스라엘

살롱! 이스라엘 하이파에서 인사드립니다.

하마스의 기습으로 일어난 전쟁이 반년을 훌쩍 넘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참 여러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유월절이 시작되기 1주일 전에 찾아 간 성묘교회는 정말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란이 미사일을 쏜 직후기에 사람들이 더 없기도 했겠지만, 성묘교회에 이렇게 사람들이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평소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잠시 서 있는 것도 힘들었던, '골고다 언덕'으로 추정되는 곳이나, 예수님 시신을 잠시 보관했다고 추정하는 '무덤 교회' 내부에 들어가서 사진을 몇 장 찍을 수 있었습니다. 성묘 교회 안에 사람이 없어 아침 9시에 이렇게 여유 있게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것이 한편 놀람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이 참 착잡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되는 전쟁의 영향으로 사람들은 많이 지쳐가고, 일자리는 없어지고, 물가는 올라가면서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에 있는 평범한 서민들의 삶만 더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울드시티에는 수많은 아랍인 상점들이 있습니다. 성지 순례를 오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데, 현재 많은 상점들이 문을 닫거나, 단축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관광객들이 많이 줄고, 또한 여러 위험성 때문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지다보니, 더 이상 정상적으로 장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곳을 한 번이라도 방문하신 분들은 유월절을 한 주 앞두고 울드시티 안에 있는 상점들이 이렇게 사람이 없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실 겁니다. (유월절 기간에는 그나마 조금 붐비는 했네요). 그만큼 평범한 이들의 삶이 더 힘들고 피해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전쟁이 종식 되고, 이 땅에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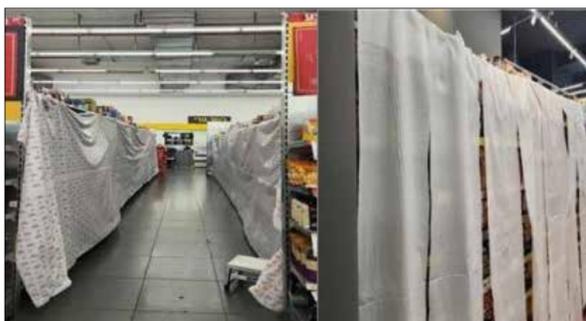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도 성경에 나오는 절기들을 다 지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유대력을 사용해서 절기를 지키기에 서양 달력과 차이가 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종종 유월절과 부활절 기념 주일이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올해는 거의 3주 이상 차이가 있

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국이나 미국에서는 3월말에 부활절 기념 예배를 드리셨겠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지난 4월 22일부터 일주일간 유월절 명절이 지켜졌습니다. 올해 역시 많은 가게들은 휴시라도 유월절 기간 동안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알지 못해서 먹지 않도록 아예 구석 한 쪽을 흰 천으로 가려서 물건 자체를 살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면서 구약이 여전히 실현되는 독특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저희는 이번 유월절 기간 중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 메시아나 유대인 교회에서 개최 하는 유월절 만찬(페사 세데르)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을 제대로 따른 만찬은 축복 기도문, 노래, 식사 등의 여러 절차를 행하며 3시간여의 시간에 걸쳐 진행됩니다. 저희가 참석한 만찬은 간략하게 줄인 만찬이었지만, 유월절 스토리 (하гада-유월절 절기를 지키는데 사용되는 모든 절차, 순서 그리고 방법을 알려주는 것)를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유월절의 만찬은 특히 다음 세대에게 이집트로부터의 해방과 동시에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게 함으로 교육하는 시간입니다.

간략하게 저희가 경험한 것을 말씀드리자면, 촛불을 켜고로 만찬은 시작되는데, 우리의 빛과 구원이신 주님을 상징합니다. 4번에 걸쳐 같은 잔에 포도주를 나눠 마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신 "너를 데리고 나오리라, 너를 자유케 하리라, 너를 구속하리라, 나의 백성으로 삼으리라"의 4가지 약속을 기념합니다. 잔은 차례로 성결의 잔, 구원의 잔, 구속의 잔 그리고 찬양의 잔으로 의미를 부여하며 중간 중간에 축복 문을 읊으며 마십니다.

녹색 야채(파슬리나 상추)는 짠 소금물에 두 번 씻어 먹으며 녹초를 위해 흘렸던 조상들의 눈물을 기념합니다. 누룩 넣지 않은 빵 (맛짜)은 3개를 전으로 씹습니다. 이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조상을 상징한다, 혹은 세 종류의 예배자 (제사장, 레위인, 회중)의 연합을 상징한다는 등의 여러 설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상징



합니다.

쓴 나물은 종살이의 노역과 어려움을 상징합니다. 과일을 갈아서 만든 카로셋은 달달한 맛으로 쓴 나물 옆에 두는데, 이는 벽돌을 쌓는데 사용했던 역정을 기념하며,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상징합니다. 사진에는 없지만, 어린양의 뼈는 우리를 위해 희생당한 양의 피와, 그 피가 주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전통 만찬은 식사 시간에도 여러 절차들이 있지만 저희는 식사 시간에 같이 앉은 사람들과 교제하며 삶과 간증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편지에서도 나왔지만, 장기화되고 있는 전쟁과 나라 안팎의 소요와 혼란, 분열로 인하여 이러한 절기들은 예전의 즐거움과 축제의 분위기가 많이 줄었습니다. 마시구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절기들은 많은 절자들을 가정으로 잘 지켜지고 있지만, 정착 이를 지키는 사람들의 마음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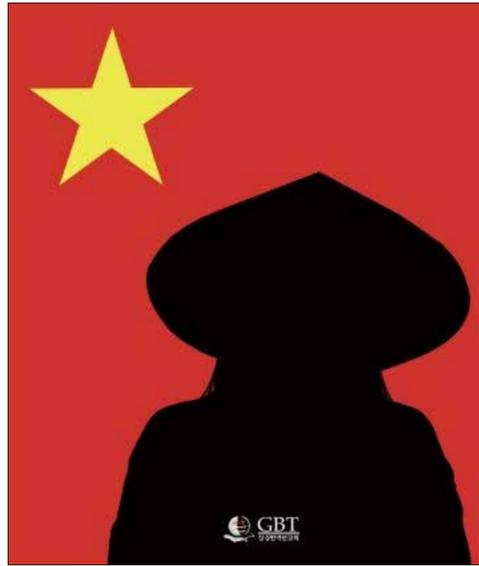
더욱 단단하고 강박해지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이렇게 절기와 법을 통해 철저히 찾는 하나님을 이제는 아버지로서 만나고, 그분의 사랑의 마음을 깨달음으로 이들의 마음이 녹고 영안이 열릴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기도제목

1. 이 땅의 전쟁이 속히 끝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일상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 저희 가족이 한 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3. 저희 가족에게 필요한 차량을 구입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수남, 김은성 선교사

세계 곳곳에 있는 소수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국가명 베트남

▲ 종족명 쿠아 종족

▲ 인구 약 5,000명

▲ 종교 민족종교 99%, 복음화율 1%

▲ 복음매체 성경 번역 필요, 기타 매체 없음

▲ 종족 프로파일 베트남 중부 국경 부근과 라오스 등지에 산다. 최근 까지 나무껍질로 만든 섬유를 염색해 옷을 만들어 입었다.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서양식 옷을 입는다. 정령승배를 하고 악한 영들을 두려워하며 그들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 달래야 한다고 믿는다.

▲ 기도제목

1. 쿠아어로 성경이 번역되어 그리스도를 믿으면 악령의 노예로 살 필요가 없음을 알게 되도록
2. 쿠아족을 위한 복음 전도자들을 세워 주시도록 (GBT 성경번역선교회)

www.chpress.net

보다 신속하고 빠른 그리스도의 메신저가 되겠습니다.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p>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p>		<p>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진국 주일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08:00 새벽기도: 오후 09:00 세례기도회: 오전 05:45 Tel: (718) 357-9199 12-25 Clintonville St, Westchester, NY 11357</p>	<p>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02:00 청년예배: 오전 08:45 수요성경공부: 오후 08:00 새벽기도: 오전 05:30 성경공부: 오전 10:00 화,토 Tel: (718) 265-2584, www.ikcb.org 14 Gros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p>	<p>뉴욕갯세마니교회 담임목사: 이저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5:30 (월-토) Tel: (516) 342-2004 www.gcmny.org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p>	
<p>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현 주일 예배: 오전 10:30 영양예배: 오전 10:45 수요 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718) 461-2810 (Fax: 경음), (917) 73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p>	<p>뉴욕양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준성 주일예배: 오후 2시 수요예배: 오후 8시 Tel: (718) 662-6611 35-24 Union St, Flushing, NY 11354</p>	<p>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 6:00 (토) Tel: (516) 387-9940, 9942(EM), www.cpcny.org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p>	<p>뉴욕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학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영양예배: 오전 9:30 수요 저녁 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매일 첫째주 금요일 오후 8:00 Tel: (718) 706-0100, www.nycc.org 43-23 37th, Ave Long Island City, NY 11101</p>	<p>뉴욕효신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평선 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11:15 청년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오전 5:55 (월-토) Tel: (718) 762-2525, 5756, www.hyoshin.org 42-15 166th St, Queens, NY 11358</p>	<p>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 (화-금) 금요일기도: 오후 8:30 (매주 1주, 3주) Tel: (201) 342-9194, sungdochurch.org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p>
<p>베이사이드 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종식 장년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30 영양예배 (EM): 1부 오전 11:30 2부 오후 2:00 주일 저녁예배: 오후 6:00 수요 저녁예배: 오후 6:00 새벽 기도: 오전 5:45 전교인특별사역예배: 매주 토요일 오전 5:30 Tel: (718) 229-2898, www.nybasidchurch.com/V2/ 45-62 21St, Bayside, NY 11361</p>	<p>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30 주일 2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오후 1:45 청년예배 오후 3:45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 Tel: (347) 513-1351, chongsu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p>	<p>새벽별주님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 예 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전 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월-토) Tel: (917) 733-7387, sbchurch2021@gmail.com 46-08 161 St Flushing, NY 11358</p>	<p>은누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문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Tel: (845) 359-1458, http://ornureechurch.com 10 Oak St, Orangeburg, NY 10962</p>	<p>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30 주일부예배: 오후 2:00 수요 예 배: 오후 8:00 새벽 기도: 오전 6:00 Tel: (718) 886-4040, www.kapcc.org 147-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 info@chpress.com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선교</p>
<p>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p>		<p>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담임목사: 김성훈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6:00 (월-금), 오전 6:30 (토) 금요중보기도회: 매일 첫째, 셋째, 다섯째 금요일 오후 7:30 금요영양기도회: 매월 둘째(금) 오후 7:30 Tel: (604) 584-5780, www.pccv.org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p>	<p>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병헌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포아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ie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p>	<p>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 3277-1489, Fax: 3209-9343 Rua Joaquim Plaza, 281 Cambuci S.Paulo Cep 01528-010</p>	
<p>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김성엽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주일 저녁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 (54) 114-631-1788, AV. CARABOBA 1253, CAP.FED., B.S., A.S., ARGENTINA</p>	<p>칠레 한인연합교회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 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초.중.고등부예배: 오전 9:30 (주일) Tel & Fax: (562) 556-7628, (562) 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p>	<p>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유문권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2:00 (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 Tel: (416) 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p>	<p>하와이 행복안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성경공부: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Tel: (808) 585-1859 1130 N. Lin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p>	<p>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규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30 (영어) 주일영양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Tel: (808) 947-5252,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p>	<p>멕시코 현지인 교회 선교사: 임한곤 선교사 1. 멕시코 반석 신학교 교수 2. 임하뉴신 신학대학 교수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3:00 주일 3부예배: 오후 5:00 Tel: (52) 33-3507-4111, hanimkr@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ajara MEX(멕시코)</p>

가정의 달을 맞아...

기러기 엄마

명진 이성숙 (수필가, 칼럼리스트)



한식당에서 주방 일을 돕는 수진이 엄마는 서울 강남에서 꽤 유명한 입시학원을 운영하던 여자다. 미국 온지 5년이 되었다는 수진 엄마는 남매를 돌보며 유학생활을 하고 있다. 수진 엄마는 낮에는 동네 부설 어학원에 다니고 저녁에는 일을 했다. 어느 날 준이가, "엄마, 수진이 엄마 만나볼래"했다. "왜?" ...

오지랖 넓은 우리 딸은 수진 엄마가 친구가 없어서 외로워한다면서 내가 친구 해 주면 좋겠다고 했다. 나도 미국 온지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마땅히 마음을 나눌 친구가 없던 참이었다. 준이가 수진이라고도 친하게 지낸다고 하니 나도 얼른 인심 쓰는 척 아이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엄마가 바쁘지만, 만나보지 뭐."

우리는 플러틴의 한식당 'J'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하기로 했다. 준은 수진네를 만나러 가는 차 안에서 수진 엄마에 대해 호감이 갈만한 정보를 내게 늘어났다. 수진이 아빠는 유명한 물리학자이고 엄마는 서울의 명문여대 영문과를 나와서 강남의 잘 나가는 영어 학원 원장이었으며, 수진네 가문 수진 엄마가 음식을 맛있게 해 주시고, 집안도 항상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다는 얘기들이다.

그래? 나는 약간의 긴장과 함께 모종의 세련된 여인을 상상하며 식당에 들어섰다. 좀 늦은 시간이라 식당은 한산했다. 우리는 중앙 홀을 지나 주방 앞자리로 안내 되었다. 잠시 후 앞치마를 두른 아주머니가 와서 "준이 엄마냐?"고 물었다. 그렇다고 하자 자기가 수진이 엄마라며 인사를 건넨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나의 당황을 눈치 챈 것인지 자신이 멋쩍어서였는지, 그는 잠시 주방으로 돌아갔다가 반 요리된 닭볶음탕을 가져와서 테이블 버너에 불을 붙였다. 수진이 엄마가 일을 한다고만 들었지 준도 나도 수진 엄마가 '이 식당 주방에서 일하는 줄은 몰랐었다. 음식은 미리 준비해 두었던 것 같다. 수진 엄마는 솜씨 좋게 닭볶음탕을 이리 저리 뒤적였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서울의 명문 여대를 나왔고 돈도 제법 벌였으며 유명한 물리학자 남편을 두었다는 것이다. 한국에 대해 호감이 갈만한 정보를 내게 늘어났다. 수진이 아빠는 유명한 물리학자이고 엄마는 서울의 명문여대 영문과를 나와서 강남의 잘 나가는 영어 학원 원장이었으며, 수진네 가문 수진 엄마가 음식을 맛있게 해 주시고, 집안도 항상 깔끔하게

거라고 상상했던 여자가 분명 아니었다. 흰색 붓글씨 도안은 페인트가 아무렇게나 갈라져 꾸덕한 느낌을 주었다. 그녀는 식당 서버 아줌마들이 하듯이 행주로 냅비 한쪽을 움직이지 않도록 잡고, 다른 손으로 나무 주걱을 들고 냅비 양을 요리조리 섞어갔다. 그녀의 손은 두껍고 거칠었다. 내가 수진 엄마



손을 내려다보는 동안 그녀도 내 손을 보았던 모양이다. "손이 참고우시네요."라는 말이 툭툭한 목소리로 건넜었다. 윤곽이 뚜렷하고 지적인 용모를 한 얼굴과는 좀 다른 목소리였다. 내 손은 아버지를 닮아 작기도 하고 그만그만 살아서였는지 나이보다 고운 편이라는 소리를 듣는다. 나는 "게을러서 그래요"하며 옆에 웃어 보였다.

그녀는 내 생각을 읽은 듯, 초면의 사람들이 나눌만한 형

식적인 문장 몇 개를 뛰어넘어 불쑥, "남편이 더 이상 돈을 안 보내겠네요."했다. 그녀는 소위 기러기 엄마였다. 그제야 나는 수진 엄마와 대화를 시작했다. "애들 뒷바라지하는데 아빠가 돈을 안 보내면 어떡해요? 그럼 한국으로 돌아가셔야죠."

우리는 그날 식당 문을 닫을 때까지 이야기를 나눴고 밤새

도록 불이 켜진 맥도날드로 자리를 옮겨 감자튀김과 커피를 놓고 수다를 이어갔다. 수진 엄마는 수진이라고 수진이 오빠를 데리고 미국으로 왔고, 그동안 수진 아빠는 학비와 생활비를 보내 주었다. 그런데 5년째 생기도 하고 그만그만 살아서였는지 나이보다 고운 편이라는 소리를 듣는다. 나는 "게을러서 그래요"하며 옆에 웃어 보였다. 그녀는 내 생각을 읽은 듯, 초면의 사람들이 나눌만한 형

게 되었다는 내막이다.

미국은 유학생 신분으로 돈 벌이를 할 수 없는 나라다. 취업 자체가 불법이다. 그녀는 영문학을 전공했지만 소심한 성격으로 주류 사회에 발을 들일 만한 스킷도 없어서 한인타운 안에서 허드렛일을 구하는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곳은 일할 것을 뻔히 알면서 일을 하러던 남편이 야속하고 원망스러웠지만, 그나마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준다는 'J'에서 일하게 되어 다행이라는 말도 했다. 그러나 내 눈앞의 그녀는 다들 스러워 보이지 않았다. 주인 남자는 아무렇게나 반말로 수진 엄마를 불렀다. 식당 마감 시간이 다가오자 그는 "손님(나와 주들)이랑 놀고 설거지는 널 아침에 와서 해도 좋다"며 걸레 문지던지듯 말하고 사라졌다. 한눈에 봐도 규격 잡힌 사람 아니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반말하고 함부로 굴어요?" 그 남자 말투에 화가 난 내 목소리가 톤을 높이자, 그녀는 "영주권 나올 때까지 참아야 해요"라며 체념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여기 사장은 그래도 좋은 편이래요. 추근대지는 않거든요" 기가 막혔다. 남편의 몰이해와 주인 남자의 갑질에 수진엄마는 시달리고 있었다.

그녀와 헤어져 돌아오는 데 심장에 돌을 담은 듯 마음이 무거웠다. "왜 돌아가지 않고?"

나의 질문에 쓸쓸하게 웃던 그녀의 얼굴이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잔영으로 떠올랐다. 나는 그 후 한번더 'J'에 갔다. 주인 남자가 함부로 태택거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나는 신경을 써서 차려 입었고 태도도 엄중히 했다. 수진 엄마는 그런 나를 좋아했다. 그녀는 작게 웃으며 내가 다녀간 후 주인 남자 태도가 좀 달라졌다는 말도 들려주었다. 우리는 그렇게 친구가 되었다.

그런 후 한 달이 지났다. 수진에게서 한밤중에 전화가 왔다. 아이는 울먹이고 있었다. 엄마가 쓰러졌다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식당일을 마치고 퇴근하던 중 차안에 쓰러져 있는 것을 다른 종업원이 발견하여 병원으로 옮겼다고 했다. 수진 엄마는 산소 호흡기에 의지해 있었고, 병세는 빠르게 악화되었다. 그리고 두주 만에 식물인간이 되었다. 그녀는 식물인간인 채로 한 달을 살고 천국으로 갔다. 과로사였다. 그녀의 죽음의 가해자는 남편과 식당 주인 남자였지만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essaycien@gmail.com

송찬우 목사의 조각 글



시애틀 임마누엘장로교회 원로목사 chansong_hase@hotmail.com

5월이 주는 행복

하루 해가 아름다운 붉은 노을 속으로 기울어 가듯이 각양각색으로 수놓아졌던 꽃들 속으로 4월이 기울어 가고, 연초록 옷을 차려입은 5월이 생명력을 머금고 솟아올랐습니다. 꽃으로 화려하게 단장했던 4월이 있었기에 연초록 옷을 차려입은 5월이 더욱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4월에 꽃들이 머물다 간 그 자리를 채운 어린 열매들을 5월은 연초록 잎들을 내서 감싸안아 보호를 하며 잘 자라도록

해준다는 생각에 또다시 하나님의 세심하신 섭리가 놀라와 제 마음에 감탄과 감사가 가득히 넘쳐납니다.

그런 제 마음에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할 하지만 나는 나는 높은게 또 하나 있지. 날은 시고 기르시는 어머니 은혜"라고 노래하는 어머니날과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라난다"라고 노래하는 어린이날이, 이 5월에 자리하고 있다는 생각이 다가옵니다.

출생과 돌봄, 자람을 나누어 생각할 수 없는, 그리고 절대



로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에 골몰하는 제게 하나님은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아름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사 43:1)

2024 로스펠리즈교회 창립 49주년 부흥회 담임목사이석부 취임 및 창립감사예배. 예수를 증거하는 삶의 기쁨을 누리라 - 행 1:8. 5월 17일 (금) - 19일 (주일). 17일(금 7:30PM) 한 영혼을 향한 목마름, 누가복음 15: 3-7. 18일(토 5:30AM) 사람 낚는 어부, 마태복음 4: 17-25. 18일(토 7:30PM) 빌립의 전도, 요한복음 1: 43-51. 19일(주일 11AM) 전도자의 시선, 사도행전 16: 16-34. 1800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7 (323) 382-0691